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69호 【루계 제25047호】 주체104(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다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70년세월이 흘렀다. 장구하고도 영광넘친 이 나날은 인민의 운명을 간직하고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여온 성스러운 행로이다. 여기에 우리 당만이 지니고있는 높은 존엄과 권위, 불패의 전투력과 영원한 생명력의 근본원천이 있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10월의 대축전장을 마중해가는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혁명적당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감사의 정과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이 세차게 끓어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당은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1

우리 당의 70성상은 가장 강렬하고 뜨거운 애민헌신으로 수놓아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인민들은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있습니다.》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사회의 심장이다. 당의 령도밑에서만 사회주의위업이 승승장구해나가게 된다.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며 당의 불패성의 담보는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되는데 있다. 땅속깊이 뿌리박은 나무가 그 어떤 사나운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것처럼 인민과 혈연적뉴대를 이룬 당은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실현하자면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한다는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뜻이 돌봐주듯이 당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로, 보호자로 되게 한다는것이다. 어머니당, 이것은 혁명하는 당의 본태이고 기본징표이다.

우리 당의 창건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어머니당의 탄생이였다. 인민대중중심의 혁명사상을 지도사상으로, 근로하는 인민의 리익과 념원실현을 투쟁목표로 내세우고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직적골간으로 하여 창건된 주체의 혁명적당이 조선로동당이다. 그때로부터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안고 자기 발전의 전 로정을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대경륜으로 아로새기였다. 온갖 지배와 압력, 불의와 비인간적인것을 쓸어버리며 전체 인민에게 참된 삶과 정치적권리를 안겨주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온것이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일찍부터 당을 어머니라고 진정에 넘쳐 부르며 그 품에 모든것을 맡기고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왔다.

인류력사에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리익을 대표하는 각양각색의 당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당도 인민들로부터 어머니라고 불리워본적은 없다. 당은 어머니, 이것은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서 가장 값높은 인생의 영광을 누려온 우리 인민에게서만 터져나올수 있는 심장의 분출이다.

우리 당력사는 모진 광풍속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삶을 굳건히 담보하여온 인민수호의 력사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존엄은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 자주적으로 살려는 본성적요구를 실현하지 못하면 살아도 죽은 몸이나 같다.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권위있는 인민만이 자기 운명을 참답게 개척해나갈수 있다.

물론 인민들에게는 물질경제생활도 중요하다. 하지만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것이 인간의 존엄이고 권리이다. 근로대중을 영원히 노예화하고 인민이 주인된 사회를 없애버리기 위해 미쳐날뛰는 원쑤들의 책동으로부터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는데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 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나라잃은 망국노의 설음도 겪었고 전대미문의 엄혹한 전쟁도 치르었으며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항시적인 침략위협도 받아왔다.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생사존망의 고비를 무수히 헤쳐온 인민은 없다. 혁명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민족멸살의 위기에서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고 우리 인민이 세기를 이어 무적필승의 강국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도록 하여준 위대한 수호자, 보호자가 바로 조선로동당이다.

우리 당은 창당의 첫 기슭에서부터 인민의 존엄을 걸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고수하여왔다. 우리 당이 청소한 공화국을 승리에로 이끌어 강대한 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사소한 양보나 타협도 없이 외세의 끈질긴 도전과 간섭을 걸음마다 단호히 쳐물리친것은 인민을 위하여 이룩한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총대를 민족의 생명으로 틀어쥐고 선군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온 당의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치렬한 반제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자주적근위병, 자주적인민의 기상을 떨쳐올수 있었다.

인권은 국권이고 군력은 국력중의 제일국력이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꺼꾸러졌을 최악의 시련속에서 민족의 명맥이 꿋꿋이 이어지고 그 존엄이 힘있게 과시된것은 선군의 위력을 천백배로 다져온 우리 당이 이룩한 력사의 기적이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하루아침에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무참히 빼앗긴 다른 나라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공포를 주는 강위력한 자위적군사력, 핵보검을 마련함으로써 민족만대의 찬란한 앞길을 펼쳐준 우리 당이야말로 자신들의 삶과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머니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우리 당력사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최우선시하여온 인민중시의 력사이다.

인민은 나라의 근본이다. 세상에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 그러나 인류사회의 어느 단계에서나 인민을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나라들에서도 당이 인민우에 군림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관료당으로 행세하였다.

오직 우리 당만이 인민대중중심의 혁명철학, 정치리념을 내놓고 자기 활동의 전기간 드팀없이 구현하여왔다. 인민은 하늘이고 선생이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해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지론이다. 여기로부터 인민의 리익을 언제나 첫자리에 놓고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그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온데 우리 당령도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혁명앞에는 어렵고도 복잡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였다. 그때마다 우리 당은 절대로 좌왕우왕하지 않았다. 인민의 요구가 모든 사색과 실천의 기준으로, 출발점으로 되였고 인민의 목소리가 로선과 정책, 투쟁강령으로 되였다. 국호와 군대,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에 인민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새겨넣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력사적과업들을 우리 인민의 지향과 의사에 맞게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온것은 이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한 독소는 세도와 관료주의이다. 우리 당은 일찌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전당과 전체 일군들이 인민의 심부름군, 인민의 충복이 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었다. 인민과 동떨어져 특권과 특세를 부리고 인민을 무시하며 깔보는 자그마한 싹도 용서치 않고 인민의 리익에 저촉되는 일이라면 큰것이건 작은것이건 허용하지 않은 우리 당의 투쟁에 의하여 세계를 휩쓴 반사회주의광풍속에서도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의 진가는 역경속에서 검증된다. 고난과 시련이 겹쌓인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시대의 진격로를 개척하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운 위대한 어머니가 우리 당이다.

우리 당력사는 인민들에게 보람차고 행복한 사회주의 새 생활을 끊임없이 안겨준 인민사랑의 력사이다.

온갖 사회적질곡에서 벗어나 유족하고 문명하게 살려는것은 인민대중의 숙망이다. 하지만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본성으로, 활동원칙으로 삼고있는 어머니당에 의해서만 인민의 행복이 꽃펴날수 있다.

우리 당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속에 쪼들리던 우리 인민모두에게 평등하고 꿈같은 삶의 려전을 마련해주었으며 로동의 권리, 배움의 권리, 창조와 향유의 권리를 다 안겨주었다. 나라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민들에게 훌륭한 살림집들을 무상으로 안겨주고 돈 한푼 받지 않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공부시켜주며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배려해주는것과 같은 시책들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할수 없는것이다.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 우리 당의 계산방법은 조건이 좋아서나 무엇이 풍족해서 나온것이 아니다. 우리 인민은 해방후부터 장장 70년간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정치군사적압박과 경제적제재봉쇄책동속에서 살아왔다. 그처럼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우리 당은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변함없이 내세웠다. 단순히 먹고 입고 쓰고 살게 하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만복을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애민헌신의 력사속에 국토의 면모가 일신되고 CNC기계바다가 펼쳐지고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고 현대적인 거리들이 단숨에 솟아나는 눈부신 현실이 끝없이 펼쳐졌다. 우리 인민은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를 걸어온 나날에 매개 가정들과 개별적사람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미치는 당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시시각각 받아안으며 자신들이야말로 제일 복받은 인민이라는것을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오늘날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물건은 차고넘쳐도 날로 격화되는 빈부의 차이와 심각한 경제위기, 생활위기속에서 불안과 공포속에 살아가고있는것이 세계의 현실이다. 당과 국가가 인민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생활과 래일에 대한 확신에 넘쳐있다.

참으로 우리 당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대해같은 인민사랑을 베푸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다. 당의 품속에서 승리와 영광의 70년을 긍지높이 수놓아온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깊이 간직된 어머니당의 모습은 10월의 하늘가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2

조선로동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칭송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력사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활동력사이며 우리 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과 결부되여있습니다.》

당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이다. 당의 인민적인 성격과 활동방식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풍모에서 우러나오게 된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 헌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활동력사는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인민들속에서 흘렀으며 인민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해오시고 인민의 커가는 행복에서 기쁨과 락을 찾으신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사랑과 정, 헌신으로 가득찬 위인의 혁명생애와 령도풍모는 커다란 견인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혁명적당풍으로 전환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수령님들께서 보여주신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대중령도방법과 고매한 풍모를 그대로 구현해왔기에 우리 당은 인민의 마음속에 억척같이 뿌리내릴수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이민위천의 사상은 우리 당안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꽉 차넘치게 한 원동력이다.

혁명하는 당이 어머니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면 인민대중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부터 가져야 한다. 인민대중을 제일 귀중한 존재로 보고 인민의 힘에서 혁명의 진리를 발견하는 당만이 어떤 경우에도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줄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인류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걸출한 수령이시다. 자신들을 한 나라의 수령, 령도자이기 전에 인민의 아들로, 인민의 복무자로 여기신데 만민을 격동시키는 우리 수령님들의 위인적풍모가 있다.

이민위천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좌우명이였다. 수령님들께서는 우리 인민을 《위대한》이라는 호칭으로만 부를수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앞에 난국이 가로놓일때일수록 인민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에게서 힘과 신심을 얻으시였고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난 시골아낙네의 소박한 말도 무겁게 대하시며 정책에 담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 정책들에는 인민의 지향과 념원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수령님들께서 구상하고 전개하신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들에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맥박치고있다.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히는 수천수만의 불멸의 저서들을 인민성, 통속성으로 일관시키시고 이 땅의 명당자리들에 인민의 대전당들과 문화휴식터들, 아이들의 궁전들을 세워주신 인민중시의 립장은 그 어느 위인전기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는것을 한생의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으신 어버이수령님들의 투철한 관점과 립장은 우리 당활동의 고귀한 귀감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정치철학을 지침으로 틀어쥐고왔기에 우리 당은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사상과 감정, 마음에 맞게 당사업을 전개해올수 있었다. 인민을 위해 당조직과 일군들이 있으며 인민대중을 떠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다는 인민중시기풍은 전당에 차넘치는 어머니당의 풍모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는 우리 당의 품이 한없이 넓은 어머니품으로 되게 한 따사로운 자양분이다.

어머니당의 풍모는 중요하게 정치방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잘나건 못나건 자식들을 진심으로 돌보아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아 훌륭하게 키워내세워주는 당이야말로 인민이 영원히 안겨살 진정한 어머니당이다.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몸바쳐나선 투사들의 전위대오이다. 따라서 당은 로동계급의 전위투사들을 핵심으로 하고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우수한 선진분자들을 묶어세운 대중적당으로 건설되여야 한다. 일찌기 대중적당건설방침을 내놓으시고 우리 당이 튼튼한 대중적지반우에서 발전할수 있게 하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숭고한 인덕정치, 광폭정치로 우리 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분들이 수령님과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초소와 공장, 농촌에 가시면 병사들과 로동자, 농민들의 친부모, 친구가 되시고 학교에 가시면 아이들의 학부형이 되시였으며 곡절많은 인생길을 걸은 사람들의 운명을 두고 더욱 마음쓰시며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어버이품속에서 이 땅우에는 온 작업반이 천리마기수가 되고 온 소대가 영웅이 되는 인간개조의 새 력사, 계급적원쑤들의 음흉한 책동으로 피로음속에 살던 온 마을 사람들이 한날한시에 억울한 루명을 벗고 나라앞에 죄를 지은 청년들이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는 감동깊은 화폭들이 수없이 펼쳐졌다.

력사에는 덕치를 표방한 정치가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들처럼 그렇듯 숭고한 덕망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운명과 미래까지도 끝없이 빛내여주신 위인들은 있어본적이 없다. 인덕의 최고화신들을 모시여 우리 당은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가꾸어왔다.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영광의 대오에 내세워준 우리 당의 품이야말로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차별없이 안아주고 보살펴준 한없이 넓은 품이며 혁명의 길에서 뜻과 정을 같이하는 참된 동지, 전우로 끝까지 믿어주고 이끌어준 영원한 삶의 품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인민적풍모는 우리 당활동이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로 일관되게 한 고귀한 귀감이다.

숭고한 인민성은 어머니당의 본성이다. 물우에 뜬 기름방울처럼 특수화, 관료화된 당이 인민을 위해 복무할수 없는것은 자명하다.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데 어머니당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는 길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원칙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에는 혁명하는 당이 어머니당으로서의 령도예술을 지닐수 있게 하는 지침과 본보기가 다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혁명의 원쑤들에게는 무서운 백두산호랑이와도 같은분이시였지만 사랑하는 병사들과 인민들, 아이들에게는 한가정의 친어버이이시였다. 논두렁이나 멍석우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여 농민들과 나라의 정사도 의논하시고 평범한 제대군인가정을 찾아 태여날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검소하게 생활하신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인민복, 야전복, 인민행렬차, 야전렬차, 여기에는 위대한 평민으로서의 우리 수령님들의 거룩한 한생이 응축되여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성품을 따르기마련이다.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지니신 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당사업을 배운 우리 당조직들과 일군들에게 있어서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는 신념의 구호, 실천의 구호로 되여왔다. 인민들과 늘 한가마밥을 먹으며 후더운 인정미로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준 당일군들,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에 가족들과 함께 앞장서 진출하고 밤길도 새벽길도 남먼저 걸으며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해놓는데서 락을 찾는 참된 충복들이 우리 당대오에서 수많이 배출되였다. 이런 당조직, 일군들의 모습을 떠나서 오직 당만을 굳게 믿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음과 랑만으로 시련을 헤치며 이르는 곳마다에 사회주의선경을 펼쳐온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누려온 당복은 곧 위대한 수령복, 장군복이다. 조선로동당을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3

오늘 어머니 우리 당의 전도는 인민이 사랑하는 령도자를 높이 모시여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력사가 위대할뿐아니라 계승 또한 위대하여야 당의 위업, 당의 명맥이 줄기차게 이어지게 된다.

인민의 무궁한 행복과 번영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피눈물의 12월 인민의 가슴속에 어머니사랑을 꽉 채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사랑하신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하여 애민헌신의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였다. 여기에는 우리 인민이 승리의 전통을 이어나갈 백년대계의 전략을 휘황히 밝혀주신 비범한 예지도 깃들어있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려는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신 단호한 결단도 새겨져있으며 온 나라에 문명과 번영의 새 생활, 희한한 천지개벽을 안아오신 탁월한 령도의 자욱도 어리여있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적정치가의 최고귀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고있다.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조선로동당의 높은 존엄과 불패의 위용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권위와 령도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당은 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여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높이 모신 더없는 민족적긍지를 안고 수령님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흠모하여왔다. 인민이 선생이라면 그 선생의 스승은 위대한 수령님들이시고 인민이 하늘이라면 그 하늘의 태양은 수령님들이시라는것이 우리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그런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관이다.

우리 인민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했을 때 얼어든 가슴에 흘러드는 불보다 뜨거운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과 열에서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을 온넋과 폐부로 절감하였다. 나라의 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치닫는 속에서 당과 국가, 군대의 중대사를 인민의 리익실현에 지향시키시고 조국보위성전에서 고귀한 생을 바친 전쟁로병들과 인민군용사들의 묘주가 되시여 그들의 위훈을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어머니당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인민을 존대하고 높이 내세운다는것이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관이 철저히 구현되여 전당이 인민을 절대화하고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이 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밑에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이 우리 당의 혁명적풍모이다. 모든 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어머니의 모습으로 더욱 깊이 새겨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의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나가는 우리 당은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끝없이 존경받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대에 오랜 세월 바라던 세기적숙망들이 실현되는것을 실생활로 체험하여온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시대에 강성과 번영, 문명의 최고경지에 올라서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뿌려놓으신 부흥의 씨앗들이 풍만한 열매로 주렁지고있다.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서의 존엄과 위력이 우주강국, 핵보유국, 청년강국의 위용으로 하여 더욱 높이 떨쳐지고있다.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게 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이다.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해서는 세상에 없는것도 기어이 만들어놓아야 하고 인민에게 안겨주는 창조물은 완전무결해야 하며 인민이 바라는것은 하늘을 나는 초음속비행기속도로 앞당겨와야 한다는것을 철칙으로 삼고계신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이 하루빨리 사회주의만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불과 3년안팎에 남들이 수십년이 걸려도 이룩하지 못할 인민사랑의 기념비가 수많이 창조되였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영웅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우리 인민이야말로 복받은 인민이다. 오늘처럼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의 가치관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인민사랑의 서사시가 이 땅우에 공기처럼 흐르고 자본주의가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인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때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나가는 력사적진군에서 우리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믿거름, 기관차가 되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분과 초를 쪼개가시며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시간이 전당의 맥동이고 최상의 문명을 최대의 속도로 앞당겨나가시는 원수님의 창조본때가 전당의 투쟁기풍이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척후병이 되여 자기 교장, 자기 단위를 전형단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고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을 보면서 인민들은 우리 당을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깊이 간직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뜻과 정, 의리로 맺어진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아름답게 가꾸어나가는 우리 당은 어머니당으로 높이 칭송받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대서사시적화폭이 펼쳐지고있다. 그것은 절절한 그리움으로 불타는 존경과 흠모의 세계이고 사상과 감정정서, 지향과 숨결을 함께 하는 혈연의 세계이며 대해같은 사랑에 충정과 보답이 따르는 고결한 의리심의 세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는 참다운 동지에, 전우에로, 숭고한 인민관, 후대관으로 천하를 움직이시고 새 세계를 창조해나가시는 사랑과 의리의 최고화신이시다. 병사들과 인민들, 어린이들을 만나실 때 제일 기뻐하시는분,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는 최전방에도 서슴없이 나가시는분, 한없이 소탈하시고 겸허하시며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신분, 외로운 마음들에 따뜻하고 자애넘친 친부모, 친자식의 정을 부어주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늘길, 바다길에서 충정의 항로를 새겨가는 전사들을 찾아걸으신 길이 얼마이고 과학자들을 위해 험한 건설장에 새기신 헌신의 자욱이 얼마이며 수백만 청년들을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떳떳이 내세우기 위하여 마음쓰신 날이 얼마인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땡짠 눈보라와 칼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백두산정에서, 물고기비린내가 가득한 포구에서,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랑의 대격전이 벌어지는 조국의 최북단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뵙고 심심산골과 수천척 지하막장, 드넓은 전야에서 원수님의 진정이 어린 말씀을 받아안으면서 원수님이시야말로 천리라도 만리라도 끝까지 따를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라는것을 뼈속깊이 새겨안았다.

령도자와 인민의 혈연적뉴대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에 의하여 공고하게 이어진다. 사람들이 심심산골에 홀로 있어도 령도자의 숨결과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게 하고 당중앙위원회뜨락에 운명의 피줄을 잇게 해야 할 핵심대오가 우리 당조직들이다. 오늘 우리 당의 목소리가 온 나라 가정에 울리게 하고 청년미풍선구자들의 말없는 스승, 길동무가 되여주며 99%의 나쁜 점이 있고 단 1%의 좋은 점, 량심이 있다면 그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있어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단결이 천백배로 강화되고있다. 인민의 가슴속에 령도자의 사랑을 꽉 채워주고 사소한 헛갈림도 없이 령도자를 따라 곧바로 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는 우리 당은 만민이 영원히 안겨살아야 할 위대한 어머니이다.

우리 당이 걸어온 행로도 긍지스럽지만 가야 할 앞길은 더욱 휘황찬란하다. 세상만물이 다 변한다 해도 인민은 영원하듯이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조선로동당의 성격과 본태는 절대불변이다.

우리 당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어머니당으로 빛을 뿌릴것이며 그 길에서 세계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위대한 승리와 번영을 끊임없이 이룩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문헌을 전달하는 행사
알제리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문헌을 전달하는 행사가 그이께서 명예박사칭호를 수여받으신 40돐에 즈음하여 16일 알제리 알좌자이르 제1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알좌자이르 제1종합대학 총장을 비롯한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1975년 5월 27일 알제리를 공식방문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알좌자이르종합대학(당시) 명예박사칭호를 수여받으시는 사진문헌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대학총장에게 전달되였다.

아브둘 하미드 빈 시니티 총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명예박사칭호를 수여받으시는 사진문헌을 대학에 모시게 된것은 우리 대학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최대의 영광이며 행운이다.

이 사진문헌은 우리 대학의 가장 귀중한 력사문헌으로서 길이 전해질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인민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조선의 종합대학들과의 친선협조관계와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브라질에서 출판, 발행식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부 항일혁명편 3권을 브라질에서 출판하였다.

발행식이 17일 빠라주 벨렝련방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발행식에는 브라질자유조국당 전국지도부와 빠라주위원회 인사들, 빠라주 벨렝련방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초대되였다.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로자니따 깜뽀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에 대한 개괄강의를 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조선인민의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의 투쟁력사를 깊이 체득할수 있게 하는 귀중한 문헌이다.

지금 많은 브라질사람들이 김일성동지의 회고록을 읽고있으며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회고록학습을 통하여 빠라주의 청년대학생들은 조선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게 될것이다.

김일성주석님은 민족의 어버이
남조선 각계가 끝없이 경모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이 땅우에 만민이 부러워하는 자주독립국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남녘겨레는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

《한민족복지재단》 성원 김강련은 오늘날 이북이 근로민중이 주인이 된 특별한 사회주의제도로, 백승만을 아로새기는 사회주의나라로 명성을 떨치며 세인의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은 절세위인의 업적이 위대하기때문이라고 피력하였다.

향일회 회장은 한 모임에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은 단군이래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모신 민족의 한울님이시고 건국의 어버이이시다.

칠칠암야에 혜성처럼 출현하시여 왜놈들의 마수로부터 겨레를 구원해주시고 해방만세소리 드높은 강산에 민중이 주인된 새 나라를 세워주신분은 바로 김일성주석님이시다.

민중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주석님께서 민중의 아들로 민중속에 계시면서 오직 민중만을 위한 참정사를 펴시였기에 이북은 말그대로 세계가 찬미하는 인류의 리상향으로, 온 겨레의 참다운 조국으로 될수 있었다.

한 재야인사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석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겨레에게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였다, 주석께서는 해방후 미제의 침략적정체를 간파하시고 나라의 영구분렬을 막고 자주, 완전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고 말하였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제자들에게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강력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언명하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민족분렬의 위기를 막고 남북 전체 민중이 자신의 손으로 통일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주석께서는 1948년 4월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하시고 모든 힘을 다하여 통일적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며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거족적인 투쟁을 벌릴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그리하여 남과 북의 전지역에서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진행되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이 온 세상에 선포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우려는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이북바로알기회 회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이라고 하면서 동서고금의 력사에 이북처럼 건국이후 짧은 기간에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천지개벽을 이룩하고 국민이 복락하는 민중의 락원을 세운 나라는 없다고 격찬하였다.

서울대학교의 한 법학교수는 이북에서 근로민중이 국가관리에 참가하고 정당, 사회단체조직들에 망라되여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고있고 로동과 휴식,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비롯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적혜택을 받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는것은 다 김일성주석님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부산의 기업가 리영만은 동료들에게 이북에서는 근로민중이 사회의 주인이며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고 운영해나가는 담당자들이다, 근로민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주권과 재부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이북은 민중중심의 세상이다고 찬탄하였다.

경북대학교의 한 퇴직교수는 공화국이 지닌 높은 영예와 존엄, 이북민중이 누리는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 이 모든것은 건국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로고의 고귀한 결실이다, 공화국은 그대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유산이다고 언명하였다.

인천의 한 주민은 김일성주석님은 인류앞에 쌓으신 업적으로 하여 영생하시고 하늘같이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민족의 어버이이시라고 칭송하였다.

경성군에 어리여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새겨가는 참관자들
—하온포리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기네 깡깡종합대학에서는 토론회가, 나이제리아 자력갱생연구소조, 라고스에 있는 데올라씨고에주식회사, 우반 쉘터주택건설회사에서는 강연회, 영화감상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당창건기념탑》,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기네 깡깡종합대학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독창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는 당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당을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한 당,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강화하신데 대하여 칭송하였다.

그들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인민사랑, 인민존중의 정치를 펼치고계신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인민의 리상과 꿈이 현실로 꽃피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백승만을 떨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나이제리아자력갱생연구소조 대리위원장은 《사회주의위업의 전진과 당의 령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의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존엄높은 사회주의집권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또한 당을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시였다.

하기에 조선로동당은 력사의 온갖 시련속에서도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나라의 실정에 맞게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세계자주화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고계시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로므니아전국준비위원회가 14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꼰쓰딴띤 로따루가, 부위원장으로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바씰레 러꺼뚜슈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 토론회, 경축모임,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가 21일 로씨야 까렐리야에서 결성되였다.

로씨야 까렐리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웨.이.예고로브와 부위원장 웨.에쓰.뽀스노브가 준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강연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가 22일 로씨야 울리야놉스크주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씨야 정일봉명칭 울리야놉스크주로조친선협회 위원장 아.엘.크루글리꼬브가, 부위원장으로 로씨야련방공산당 울리야놉스크주위원회 비서 아.웨.꾸린느이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강연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박봉주총리
황해남도안의 농사실태 현지료해

박봉주내각총리는 황해남도 신천군, 안악군, 은천군의 농사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황해남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일 일념밑에 당면한 가을걷이전투에 힘있게 떨쳐나섰다.

총리는 인민생활향상에서 먹는 문제, 식량문제해결을 첫째가는 중대사로 내세우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실현하는데서 황해남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강조하고 가을걷이를 적기에 와닥닥 해제끼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이에 앞서 총리는 2.8직동청년탄광을 돌아보고 가진 협의회에서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기네-비싸우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비싸우

기네-비싸우공화국 대통령
죠제 마리오 바즈각하

나는 기네-비싸우공화국선포 42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민족적화해와 나라의 안정, 사회경제적발전을 위한 당신의 고귀한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9월 24일 평 양

인민들속에서
모든 산을 황금산, 비단산으로
리규환

북청군치고도 우리 룡전리는 가장 큰 영예를 지닌 마을이다.

력사적인 우리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가 바로 우리 문화협동농장(당시 문화농업협동조합)에서 열렸던것이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모든 산을 백과 무르익는 황금산으로 전변시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모든 산을 황금산, 비단산으로!

그이의 이 위대한 구상을 전당과 전체 인민의 투쟁강령으로 접수한 북청회의를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1961년 4월 4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농장에 오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은 첫새벽부터 들끓었다.

봄비를 맞아 잔디가 더욱 파랗게 돋아오르는 남대천 방축너머로 멀리 승용차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승용차가 마을앞에 와 멎자 나는 농장원들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앞으로 달려갔다.

차에서 내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환영나온 농장원들이 비를 맞는것을 념려하시여 걱정어린 표정으로 빨리 들어들 가라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누구도 어버이수령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과나무와 뽕나무를 심은 산비탈을 바라보시며 《동무들은 참으로 당정책을 훌륭히 집행했소.》 하고 우리를 치하해주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관리위원장 동무에게 물으시였다.

《뽕나무는 정당 몇그루씩 심었소?》

《정당 2만그루를 심었습니다.》

《아주 잘했소. 당이 내세운 정책대로 잘했소. 오던 길에 산비탈 뽕밭에 올라가 뽕나무를 세여봤는데 정당 2만그루가 틀림없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비를 맞으시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시는 길에 산비탈과수원을 일일이 돌아보시였고 우리들도 눈여겨보지 않으면 알아낼수 없는 뽕밭에까지 찾아가시여 몸소 재식밀도도 재여보시고 평당 그루수도 세여보시였던것이다.

산에다 사과나무와 함께 뽕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하겠소. 그러면 뽕도 많이 따고 사태도 방지할수 있으니 얼마나 좋소. 앞으로는 모래막이공사를 할 때 뽕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어야 하겠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그이께서 비를 맞으시는것이 몹시 걱정되였지만 수령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을 보고 찬비를 맞으면 몸에 해롭다고 하시며 어서들 들어가라고 재삼 말씀하시는것이였다.

한참후에야 휴계실로 들어가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뒤따라 들어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북청땅에 이렇게 또다시 찾아온것은 앞서 왔을때 유명한 산경사지과수원들을 보았기때문이요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상들이 이룩해놓은 귀중한 본을 따서 산에다 사과나무와 뽕나무를 많이 심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몇번이나 말씀하시고나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더니 수행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곳 룡전리에서 시범상학을 조직합시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이곳에서 가집시다.

나는 이때야 비로소 수령님께서 나라일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장을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산을 잘 리용할데 대한 방도를 가르쳐주시던 그 깊은 뜻을 짐작할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57년에 북청군일대를 돌아보시면서 전국의 산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과수면적을 10만정보로 확대시킬데 대하여 구상하시고 이 문제를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할것을 제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후 우리 농장을 찾아오시여 과수원을 확장할데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던것이다.

1959년에 우리 농장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43° 경사지에 있는 계단식과수원까지 올라가시여 과수재배정형을 세세히 료해하신 다음 3단주지법대신에 주간형가지자르기방법도 도입하며 정당 30t씩 비료를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떨어진 열매로는 술, 과일단졸임, 식초 등을 만들어 수입을 높일데 대해서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조합은 아주 높은 수확을 내고있소. 평지대과수원과 차이가 없소. 이 조합의 과수원은 참으로 훌륭하오. 높은 산이나 골짜기가 전부 과실천지요. 이것이 지상락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전국이 하루바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청군을 이 조합처럼 만들어야겠소.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20° 로부터 35° 의 심한 경사지를 개간하여 21정보의 과수원과 17정보의 나무모밭을 더 얻어냈다. 이리하여 북청군적으로 1 000여정보의 과수원이 산경사지에 새로 생겨났다.

그이께서는 우리들이 창조한 이 자그마한 싹에서 부유해질 조국의 래일을 바라보셨던것이다.

이렇듯 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치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우리 농장에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를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하여 력사적인 북청회의를 준비하시였던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에 앞서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협의회에는 군내의 근 300명의 과수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노전을 깐 방바닥에 앉으시면서 조선사람은 이렇게 온돌방에 앉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오라고 말씀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처음에 우리 농장 과수작업반장이 계단식과수원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토론하였다.

그는 계단식과수원은 태양광선을 많이 받기때문에 평지대과수원보다 사과의 빛갈도 고울뿐만아니라 맛도 좋다는것을 말하면서 수령님의 교시대로 심한 경사지를 개간하여 사과나무를 심고 거기에 콩과 강냉이, 호박도 심어서 기름도 짜고 집짐승사료문제도 해결하였다는것을 이야기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작업반장의 토론을 주의깊게 들으시고나서 옳소, 바로 그거요, 우리는 알곡이 첫째고 그다음 사과를 먹자는거요, 동무들이 참 일을 잘했소 하고 만족해하시였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토론하려고 앞을 다투어 일어섰다.

어떤 때는 두세사람씩 한꺼번에 일어서군 하였다.

그러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면서 누가 먼저 일어났는가고, 먼저 일어선 순서대로 토론을 하라고 말씀하군 하시였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이렇듯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협의회는 화기에 찬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협의회에서는 좋은 경험들이 많이 제기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과수업에서 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동무들에게 나도 의견을 말해야 하겠습니다. 이 조합에 살구나무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였다.

우리들이 얼마 안된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사과에만 편중하지 말고 조합의 기후풍토에 맞게 살구, 복숭아, 추리, 포도 등 다양한 과실을 심어 계절에 따라 끊임없이 맛좋은 과실을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라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협의회를 마감하시며 과수업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과수업에서 기수이며 기사이며 박사들입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협의된 의견들만 가지고도 전국이 모여서 충분히 회의를 할수 있습니다.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이 말씀에서 또 하나 귀중한것을 배웠다.

협의회를 소집한 목적이 바로 광범한 대중의 의견을 종합하고 체계화한 기초우에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지도하시려는데 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우리 나라는 산이 많습니다. 약 900만정보가량이나 됩니다. 북청사람들처럼 높은 산 깊은 골짜기까지 과수원과 뽕나무밭을 일군다면 삼천리금수강산 어디나 다 황금산, 비단산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산면적의 10분의 1만 개간하여도 실로 수많은 과수원을 만들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경치가 좋고 살기 좋은 지상락원이 되겠습니까. 몇해후에 여기서 100만t의 실과를 생산한다면 50만t은 우리가 먹고 50만t은 다른 나라에 수출하여 밀 100만, 강냉이 150만t을 바꿔들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량과 집짐승먹이 문제도 해결하고 고기도 세계적수준에 도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마다 과실가공공장을 차려놓고 포도주도 만들어 마신다면 인민들은 모두가 장수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중농들처럼 조반석죽이나 하자면 이렇게 산에다 대대적으로 과수원을 만들려고 머리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조상들은 근면하고 슬기로운분들이였습니다. 그러나 리조봉건귀족통치배들은 큰 대통을 물고 정자나 짓고 기생놀이나 하면서 우리들에게 불과 만정보도 못되는 과수원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수 없습니다. 우리는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천지를 개변하는 혁명을 하고있습니다. 우리들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산을 개간하여 가까운 년간에 30만내지 50만정보의 과수원을 삼천리금수강산에 만들어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말씀을 듣는 나의 머리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하신 그이의 말씀이 떠올랐다.

산좋고 물맑은 우리 조국땅우에 착취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풍만한 자원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여 모든 인민들이 자유롭고 풍족하게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종국적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리상은 과학적이기때문에 그것은 기필코 현실화되리라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 없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위대한 리상은 오늘 현실로 되고있지 않는가.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 이미 착취없는 사회를 건설하시였다. 그리고 우리 인민을 보다 풍족하게 살게 하시려는 그이의 념원도 지금 실현되고있다. 우리 농장만 하여도 모두 부유한 중농수준으로 되였다.

나는 우리 인민이 행복하게 살게 될 희망찬 래일을 머리속에 그리면서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이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참 동무들은 조상들의 본을 따서 산을 쓸모있게 가꿨소, 북청문화농업협동조합같으면 전국의 모범이 될수 있소라고 우리들을 치하해주시였다.

돌밭을 일구며 산비탈골짜기에 고랑을 째고 과일나무를 심어 과일을 마음껏 먹어보려는 조상들의 슬기로운 념원은 실로 오늘 로동당시대에 와서야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활짝 꽃필수 있게 된것이다.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보시고도, 산비탈의 한째기 뽕나무밭을 더듬으시고도 조상들이 쌓아올린 슬기를 찾아보시는 그이, 오늘 우리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시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 우리 인민과 우리 자손들은 얼마나 행복스러운가.

협의회에서 나오자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조합에서 전국적인 회의를 여시고 우리 나라의 모든 산을 황금산, 비단산으로 만들어 후손만대에 넘겨줄 크나큰 설계를 하신다고 말하였다.

3면으로 계속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자

석탄생산에 앞서 중시한 종업원들의 생활향상문제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계획수행은 생산단위 일군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시해야 할 사업이 있다는것을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실천을 통해 보여주었다.

두해전 9월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되여온 김영훈동무는 단위실태를 료해하면서 생각이 깊었다. 다른 단위들에서 발전소를 건설한다, 후방토대를 갖추어놓는다 하며 종업원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일군들이 발이 닳도록 뛰고있을 때 련합기업소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가 풍곡지구에 탄부휴양소와 체육관을 건설할것을 발기하였을 때 적지 않은 일군들속에서는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생산계획을 수행하자고 해도 바쁜데 언제 그런 일까지 안고 돌아가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이런 관점과 림장은 탄부휴양소건설을 시작했을 때 더욱 우심하게 나타났다.

돌격구령을 내렸지만 첫날 공사에 달라붙은 단위는 얼마 되지 않았다. 원인을 알아보니 생산이 긴장하기때문에 여유로력이 없다는것이였다.

이 사실에서 당책임일군은 심각한 교훈을 찾았다.

생산수자를 보기 전에 탄부들을 먼저 보는 관점에 설 때 그들을 위한 좋은 일을 할수 있다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책임일군은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자기의 생각을 터놓았다.

지금 적지 않은 일군들이 생산일면에만 치우치면서 탄부들의 생활에 관심을 적게 돌리고있다. 탄부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일판을 벌려놓으면 마치도 생산계획수행이 떨어지는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사업에 뛰여들지 않고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앞세우면 탄부들을 위해 언제 가도 좋은 일을 할수 없다. 생산수자를 보기 전에 탄부들을 먼저 보는 관점에 설 때만이 탄부들의 생활도 향상되고 석탄생산도 높일수 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앞새를 메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데 있다.

당책임일군의 이야기는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되여 탄부휴양소와 체육관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한 방도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인재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당위원회일군들은 탄부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는 관점만 투철하면 인재는 얼마든지 찾을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에 달라붙었다. 이웃군에 건설에 조예가 깊은 시공기술자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에는 그가 살게 될 살림집까지 마련해놓고 책임비서가 직접 데리러 갔다. 이렇게 되여 얼마후 당위원회에서 보내준 자동차에 이사짐을 싣고 시공기술자가 북창으로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시공일군들과 기업소 당 및 행정일군들이 뻐스를 타고 연풍과학자휴양소에 대한 참관을 하고 돌아왔다. 이것은 일군들이 과학자들을 위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느끼게 한 하나의 정치사업이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관을 구현해나가는데서 앞새를 메고나갈 결심을 굳히였다.

참관사업은 그후에도 계속되였다.

문수물놀이장, 류경원,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건설에서 제기되는 자재도 책임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풀어나갔다.

골조공사를 할 때였다.

어느날 공사장을 찾았던 당위원회 책임일군은 공사가 일정계획보다 처지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세멘트가 미처 도착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이때에도 그는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직접 화물자동차를 타고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 찾아가 그곳 로동자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그들을 불러일으켜 많은 량의 세멘트를 해결해왔다. 지배인 리영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도 긴장한 수송전투를 벌려 수천t의 모래를 해결하였다. 그뒤를 따라 일군들이 떨쳐나섰다. 건설자재들이 들이닥치고 풍성한 후방사업이 안받침되자 탄부휴양소건설속도는 부쩍 높아졌다.

탄부휴양소가 건설된다는 소식은 탄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그대로 말없는 정치사업이였다.

일군들이 받은 충격 또한 컸다. 낮에는 낮대로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밤에는 밤대로 공사장에 나와 신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는 책임일군들을 보며 일군들은 생산이 바쁘다고 탄부들의 생활에 대해 관심을 적게 돌린 자신들의 지난날을 자책속에 돌이켜보며 분발해나섰다.

탄부들을 위한 이런 뜨거운 마음이 합쳐지는 과정에 착공의 첫삽을 박은지 몇달만에 수영장과 탁구장을 비롯하여 모든 문화후생시설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3층으로 된 탄부휴양소가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그 기세로 배구, 롱구, 정구, 바드민톤 등을 할수 있는 체육관도 멋들어지게 건설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북창탄부오리공장개건확장공사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굴진공들과 채탄공들에게 오리고기를 공급하고있다. 남새온실과 버섯재배장도 실리가 나게 꾸리고 활성화하여 탄부들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게 되였다.

생산을 보기 전에 종업원들의 생활을 먼저 보는 일군들의 복무관점은 대중을 석탄증산투쟁에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탄부휴양소와 체육관을 건설하느라 여느때없이 로력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도 석탄생산이 올라갔던것이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당의 인민관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이곳 당위원회 일군들의 참신한 당사업기풍을 엿보게 된다.

본사기자 손영희

인민의 기쁨에 비낀 헌신의 모습

태천군당위원회 일군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으로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의 모습은 인민들의 기쁨과 웃음에 그대로 비끼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태천군소재지의 한가운데 자리잡고있는 국수집에서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우리가 이곳을 찾은 때는 점심시간이였다. 국수집이 매우 흥성거리고있었다. 우리와 동행하던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봉섭동무의 말에 의하면 매일 점심시간이면 태천읍의 수백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곳을 즐겨찾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몇해전까지만 해도 국수집은 그닥 흥성거리지 못하였다고, 그러던것이 군당책임비서를 비롯한 군당일군들이 인민생활에 보다 깊은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인민들의 기쁨이 넘쳐나는 곳으로 되였다고 흥에 겨워 말하였다.

우리와 만난 국수집책임자 정명옥동무는 찾아오는 주민들이 자기들의 정성이 깃든 국수를 맛있게 들며 기뻐할 때마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의 헌신의 모습이 떠올라 감동에 젖어들군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군당책임비서 김승일동무는 2년전 봄 어느날 국수집에 나와보고 손님이 매우 적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후 그는 국수집운영을 잘하기 위한 관계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였다.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군의 원료기지면적이 계획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군당책임일군은 그 문제는 자신이 맡겠다고 나섰다.

그후 군당책임비서는 일군들과 함께 군안의 산발들을 타기도 하고 강기슭을 걷기도 하면서 빈땅을 찾아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였다.

사실 군당책임비서사업을 시작하면서 벌려놓은 일이 많았지만 그는 국수집을 활발히 운영하는 문제를 인민생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던것이다. 군당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속에 마침내 군에서는 80여정보의 원료기지를 더 늘일수 있게 되였으며 그중에서도 군사회급양관리소의 원료기지면적은 종전보다 4.5배로 늘어나고 국수집도 많은 면적의 원료기지를 가지게 되였다.

하지만 국수집을 활발히 운영하기 위한 군당책임일군의 노력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국수집운영에 필요한 석탄도 해마다 수십t씩 보장하도록 정연한 체계를 세웠으며 국수기계도 만들어 보내주었다.

료리와 관련한 책을 많이 탐독한 군당책임일군은 드문히 국수집에 들려 료리사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리고 료리경연과 료리품평회도 조직하도록 하고 아무리 바빠도 여기에 참가하여 료리사들이 분발하도록 고무격려도 해주고 부족점을 고치기 위한 방도도 토론하군 하였다.

이 나날에 국수집운영은 활성화되고 봉사의 질이 훨씬 높아졌다. 매일 국수를 눅은 값으로 수백명의 주민들에게 봉사하면서도 영예군인, 전쟁로병들에 대한 봉사도 잘해나가게 되였다.

참으로 흥성거리는 국수집에서 흘러나오는 인민의 기쁨에 넘친 웃음에는 그것을 꽃피우기 위해 헌신의 땀을 바쳐가고있는 군당위원회일군들의 노력이 진하게 슴배여있었다.

국수집에서 울리는 인민들의 기쁨에 넘친 웃음소리!

그것은 그대로 우리 당에 대한 감사의 정의 분출이였다.

본사기자 리종석

어머니심정이면 못해낼 일이 없다

선교영예군인철제일용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밤이 퍽 깊었지만 선교영예군인철제일용품공장 초급당비서 김창선동무는 좀처럼 잠들수가 없었다. 종업원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과정에 일부 종업원들이 살림집지붕기와가 낡아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딸들을 사랑하듯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세심히 돌봐주어야 합니다.》

다음날 초급당일군은 지배인 김대우동무와 무릎을 마주하였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별로 신통한 방도가 나서지 않았다.

초급당일군의 마음은 피로왔다. 낡은 지붕기와때문에 불편을 느끼고있는 종업원들이 남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형제, 세간난 딸자식의 모습으로 눈앞에 안겨왔다.

(지붕감을 시급히 해결할 방도가 없을가?…)

그는 방도를 모색하며 여러 사람들과도 의논해보았다. 이 과정에 어느 한 단위에 있는 기술자와 협력하면 질좋은 스레트를 공장자체로도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는 결심이 서게 되였다.

그는 지배인에게 지붕감을 해결할 길이 열렸다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기쁨넘친 초급당일군의 얼굴을 보며 지배인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종업원들을 위한 일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고 늘 외우며 걸린 문제를 솔선 앞장에서 풀어나가군 하던 그가 이번에도 끝끝내 방도를 찾아냈던것이다.

사실 공장에 온 첫날부터 초급당일군은 종업원들을 친혈육처럼 여기며 그들의 생활을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세심하게 보살펴왔다.

주마다 혁신자들을 위한 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든 사실, 종업원들의 생일상을 빠짐없이 차려주게 한 사실, 자신이 직접 집에서부터 공장까지 집짐승먹이를 날라오면서 축산을 힘있게 내밀어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에 이바지한 사실…

실로 자식을 위하는 친어머니의 사랑과 진정이 몸에 푹 배여있는 초급당일군이였다.

한 기술자와 협력하여 지붕감문제를 풀자는 제안은 지배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날부터 초급당일군은 그 기술자와의 사업에 큰 품을 넣었다.

종업원들을 위하는 초급당일군의 뜨거운 진정은 그 기술자의 심장을 움직이게 하였으며 마침내 공장에서는 스레트를 자체로 생산하게 되였다.

지붕감이 해결되자 초급당일군은 공장일군들과 함께 종업원들의 살림집에 나가 낡은 지붕기와를 새것으로 교체해주기 위한 전투를 와닥닥 끝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종업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여났다.

살림집지붕에 비낀 어머니마음!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듯이 이 하나의 사실에도 종업원들을 위하는 이 공장 초급당일군들의 진정이 얼마나 뜨겁게 비껴있는것인가.

이처럼 어머니심정이면 못해낼 일이 없다.

허일무

웃음소리 높을수록 더 큰 목표를

사리원시 대성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농장원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리원시 대성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농장원들에게 기쁨이 될 어떤 일을 해놓는 경우에도 추호의 만족을 모르고 자신들에 대한 요구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생은 자기가 하고 락은 인민들이 누려야 한다는 립장과 자세에서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애써 일하며 실적을 올리는 일군만이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있습니다.》

몇해전 농장이 들썩하게 결산분배가 진행된 날 저녁이였다.

맡겨진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나라의 쌀독을 그득그득 채우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많은 분배를 받은 농장원들의 집집에서는 기쁨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적지 않은 일군들이 그것을 흐뭇한 마음으로 들으며 만시름을 놓고있었다. 하지만 초급당비서 박재웅동무는 그렇지 않았다.

(자만할 근거는 없다.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만복을 누리게 하시려는것은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농장원들의 웃음소리 높을수록 더 큰 목표를 내걸고 투쟁하자!)

초급당비서는 그밤에 가다듬은 자기의 결심을 실천에 그대로 옮기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농사를 위한 당적지도를 보다 심도있게 해나가면서도 농장원들을 위한 많은 일들을 주도세밀하게 작전하고 추진하였다.

농장원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기울인 노력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실례의 하나이다.

리근송동무를 비롯한 초급당일군들은 축산에서 제일 뒤떨어진 어느 한 작업반사업에 특별히 품을 들이였다. 그 작업반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일에는 힘을 넣으면서 축산을 소홀히 하던 그릇된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하도록 하였다. 그 작업반이 소리치며 일어서는 놀라운 현실을 목격하면서 각 작업반들에서 축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농장의 전반적인 축산토대가 튼튼해지고 고기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농장원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공급할수 있게 되였고 그들의 얼굴에 기쁨의 웃음꽃이 더 활짝 피여나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지난 8월에는 이 농장에서 축산과 관련한 도적인 보여주기사업까지 진행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작업반들에 훌륭히 꾸려진 편의봉사시설들과 남새온실들, 버섯생산기지들…

농장원들이 실지 덕을 보는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에도 자식들에게 한가지를 해주면 열가지, 백가지를 더 해주고싶어하는 어머니심정으로 계속 일감을 찾아쥐고 뛰여다닌 이곳 초급당일군들의 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다.

진정은 사람을 울리는 법이다. 농장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기울이는 당일군들의 진정에서 어머니당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끼며 비상한 정신력을 발휘하였다. 해마다 농사에서 장훈을 부른것은 물론 어떤 일에서나 남에게 짝지지 않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 자만은 금물이다. 어느 일군이든지 자기 단위 종업원들을 위해 무엇을 좀 해놓았다고 자부하면서 잠시라도 마음의 탕개를 늦춘다면 사업에서 계속 높은 실적을 쌓을수 없으며 자기도 모르게 뒤떨어지게 된다. 오직 앞을 내다보며 완강하게 돌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볼 때 농장원들의 웃음소리 높을수록 더 큰 목표를 내걸고 투쟁하여 헌신의 자욱을 참답게 수놓아가는 이곳 농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는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리정수

—평양기료품공장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당창건 일흔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2면에서 계속

며칠이 지난 4월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하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가 열리였다.

나도 직접 그 회의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회의에서는 전국의 산을 모두 과수동산으로 전변시킬 구체적인 방도들을 토의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라.〉는 구호를 내놓았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산을 잘 리용할데 대해서는 우리의 선조들도 많이 강조하여왔습니다. 그러므로 산을 잘 리용하라는 우리 당의 구호는 우리 인민의 좋은 전통을 살린 구호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산을 리용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산을 리용하여 벌써 약 8만정보의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1957년이후 몇해밖에 안되는 동안에 거둔 성과입니다. 새로 만든 8만정보의 과수원은 한 5~6년 지나면 과실을 딸수 있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당 평균 12t씩 딴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거의 100만t의 과실을 얻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한사람당 약 100kg씩 차례지는 대단한 량입니다. 그때에 가서는 우리 인민들이 과실을 넉넉히 먹고도 남게 될것입니다. …

그런데 과수원 8만정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한다면 그리 많은것도 아닙니다. … 우리는 적어도 30만정보 내지 40만정보의 과수원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벌판이 적고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같이 많은 과수원을 가지려면 산을 리용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

사실 우리 나라에는 과수원을 만들만 한 산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있는 이와 같은 산들을 우리가 다 일구어 과수원을 많이 만든다면 거기에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할수 있는 큰 재부를 얻어낼수 있습니다.

…

과수원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위대한 혁명과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만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입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이 거대한 사업을 할수 없습니다.

이 방대한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자기 향토를 사랑하며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

…한 5년동안 계속 투쟁한다면 25만정보의 과수원과 5만정보의 뽕밭을 새로 만들수 있게 될것입니다.

…

우리는 7개년계획기간에 과수원을 한 20만정보 새로 만들어 30만정보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이 회의는 우리 나라에서 단꺼번에 20만정보의 새땅을 얻어내게 했다. 여기에 과일나무를 심으면 이미 개간한것을 합쳐 30만정보의 과수원이 조국의 산을 뒤덮게 된다.

정보당 10t씩만 과일을 수확한다 해도 300만t의 과일더미가 산처럼 솟을것이 아닌가.

회의참가자들은 모두다 백과 무르익을 조국의 산들을 눈앞에 그리면서 회의장을 나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부르시였다.

《리당위원장동무, 우리는 많은 페를 끼치고 떠납니다.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동무들이 전국의 모범이 되여야 하겠소.》

수령님께서는 나의 손을 잡고 오래동안 흔들며 격려해주시였다.

나는 어버이수령님앞에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북청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그이의 기대에 보답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평양으로 돌아가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협동농장에 뜨락또르를 보내주시였다.

우리 농장원들은 그날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여 뜨락또르를 둘러싸고 얼싸 좋아라고 춤을 추었다. 그리고 과수원개간에서 혁신을 일으킬 굳은 결의를 다시한번 다지였다.

우리 농장원들은 모두가 한사람처럼 과수원개간에 궐기하였다. 칠순이 넘은 로인들도 마음은 늙지 않았다고 하면서 청년돌격대에 떼를 쓰고 들어왔다.

돌격대원들은 령너머 장흥동골에 천막을 치고 개간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북청회의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76정보의 과수원을 새로 개간하였다.

산경사지에 새로 생겨난 이 과수원에는 1만 5 000여그루의 사과나무와 1만그루이상의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있다.

이제 1967년에 가서는 북청회의정신을 받들고 우리가 심은 나무들에서 첫열매를 뺏게 된다.

그때에 가면 우리들의 생활이 얼마나 더 유족해질것인가.

호당 2 000여원의 현금과 3t이상의 알곡을 분배받고 사람들은 더덩실 춤을 추며 노래부를것이다.

북청회의는 우리를 더 잘살게 만들었다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후손만대 번영할 황금산, 비단산을 안겨주시였다고.

주체미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추동

평양미술대학 일군들과 교원, 학생들이 지난 3년간 수많은 미술작품들과 산업미술도안들을 창작

평양미술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학생들이 지난 3년간 수많은 미술작품들과 산업미술도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중요건설대상들을 완공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술가들이 창작하는 도안의 점 하나, 선 하나에도 인민들의 미적요구와 편리를 최우선 보장하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앞당기려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과 정성이 깃들어야 합니다.》

주체미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적극 추동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대학의 모든 일군들과 학부와 강좌의 교원, 학생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에 동원되였던 조선화학부와 회화학부의 교원, 학생들은 련관단위들과 함께 수십점의 내부장식물제작에 창조적열정을 다 바쳐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았다.

조각학부의 교원, 학생들도 련관단위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외벽에 붙일 부각상들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의 문주조각, 조각군상들을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성하여 개관식과 준공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련관단위들과 함께 지난 시기 반년이상의 형상기일이 걸려야 한다고 하던 신천박물관의 대형벽부각 《밤나무골에 서린 원한》과 정면벽부각 《신념을 지켜》, 《복수자들》을 한달동안에 완성하는 기적을 창조하여 미술분야에서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조선화학부와 회화학부, 출판화학부의 교원, 학생들은 련관단위들과 함께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폭로하는 수십점의 미술작품들을 창작완성하여 신천박물관을 하나의 계급교양대학으로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학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전하는 옥류아동병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평양애육원, 원산애육원, 창광유치원 등을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의 동심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과 중앙동물원을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도 집단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공예학부장, 출판화학부 삽화강좌장을 비롯한 대학의 교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각종 내부장식그림과 직관물 및 동식물표본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하기 위한 집체적협의를 거듭하여 총체적인 형성안을 우리 식으로 완성하고 각종 동식물표본들과 기물들을 훌륭히 제작하기 위한 기발한 착상을 하여 중요건설대상들의 조형화, 예술화를 실현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훌륭히 착상된 형성안에 기초하여 여러 학부의 교원, 학생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창작전투를 벌려 수많은 미술형상과제들을 짧은 기간안에 완성하여 당의 의도에 맞게 중요건설대상들을 최상의 수준으로 완공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장에 달려나간 대학의 교원, 학생들은 련관단위들과 함께 원숭이관의 외벽가바위형상 및 도색작업과 내부장식형상과제들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였으며 구내 휴식터의 각종 동물조각들도 새롭고 특색있게 하여 중앙동물원을 조형화, 예술화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산업미술학부의 교원, 학생들도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척후병의 사명을 믿음직하게 수행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비상한 창조적열정을 총폭발시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수많은 가치있는 산업미술도안들을 훌륭히 창작하였다.

학부장으로부터 매 강좌의 교원들과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들끓는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해당 대상의 특성이 집약적으로 반영된 전형적인 세부자료들을 탐구하고 세계적인 산업미술발전추세도 연구하였으며 인민들의 미적요구와 편리를 최우선 보장하기 위해 수십차례의 현지습작을 하는 한편 해당 부문 전문가들과도 진지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거듭하였다.

교원, 학생들의 고심어린 노력에 의하여 갈마비행장마크도안, 평양국제비행장마크도안, 마식령호텔봉사복도안, 미림승마구락부 겨울승마복도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증서도안 등 많은 산업미술도안들이 창작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3년동안 700여점의 미술작품들과 9 570여점의 내부장식그림, 2 000여점의 직관물 및 동식물표본, 500여점의 산업미술도안들을 당의 의도에 맞게 창작완성함으로써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신천박물관 등 중요건설대상들을 완공하는데 기여한 평양미술대학의 교원, 학생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감사를 보내주시였으며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도록 하시였다.

형상실천에 필요한 자료들도 보내주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시고도 중요건설대상들이 완공되였을 때에는 값높은 평가를 대학의 교원, 학생들에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평양미술대학 전체 일군들과 교원, 학생들이 지칠줄 모르는 창조적열정을 발휘하게 한 정신적원동력이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중요건설대상들의 완공을 앞당기기 위한 대학교원, 학생들의 지난 3년간의 투쟁과정에는 부족되는 색감과 기자재를 자체로 보장하고 혁신적인 창의고안들을 실천에 적극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긍정적인 소행들도 높이 발휘되였다.

평양미술대학 일군들과 교원, 학생들이 지난 3년간 수많은 미술작품들과 산업미술도안들을 창작완성하여 당의 사회주의문명국건설구상실현에 이바지한 성과는 당에서 절실히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열백밤을 패서라도 당에서 정해준 기일에 당에서 바라는 최상의 수준으로 완성하는것을 체질화한 이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다.

평양미술대학 일군들과 교원, 학생들은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현재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비롯한 여러 중요대상건설장마다에서 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우리 당의 사회주의문명국건설구상실현의 앞장에서 계속 전진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불타는 창조적열정과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에 더 훌륭한 로력적선물을 안고 들어서려는 평양미술대학 일군들과 교원, 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빛나는 결실을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백성근

값높은 창조의 길에 새겨진 고결한 지향

회령화학일용품공장 기술준비실 실장 로정옥동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크지 않아도 귀중한것이며 언제나 아름다운것입니다.》

그는 여든살을 넘긴 할머니였다.

체소한 몸집, 마디가 거룰진 손, 흰서리가 내린 머리…

이 땅 어디서나 볼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였다.

20대 꽃나이시절부터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피타는 사색과 탐구로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인민소비품생산의 정상화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온 회령화학일용품공장 기술준비실 실장 로정옥동무,

타오르는 불길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넋이 깃든 창조물을 내놓으라!

나라를 위한 일감은 어디에나 있다

《몇번이나 말해야 알겠소? 우리 관리소는 연구단위가 아니라구. 쓸데없는 생각일랑 말고 맡은 일이나 잘하오.》

한시간도 못되는 사이에 세번째로 듣는 대답이였다. 그러나 로정옥동무는 단념하지 않았다. 네번째로 되는 고집스러운 목소리가 또다시 방안을 울렸다.

《지배인동지, 절 믿어주십시오.》

두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그뒤로 흐르는 짧으나 숨막힐듯 한 침묵…

《좋소. 동무의 요구대로 화학실험실로 쓸 방 한칸을 내주겠소. 그러나 기간은 반년이요.》

순간 탄성 비슷한 소리가 로정옥동무의 입에서 튀여나왔다.

《정말 고맙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평양경공업대학(당시)을 졸업한 로정옥동무가 어느 한 군편의 봉사관리소에 배치받은지 석달이 지난 어느날 저녁이였다.

그날 밤 흩가분한 기분으로 자리에 누웠지만 로정옥동무는 쉬이 잠들수 없었다. 눈앞으로는 지나온 인생길이 어제런듯 삼삼히 떠올랐다.

로정옥동무의 고향은 무산이였다.

나라없던 비운의 세월 그는 돌러보면 산밖에 보이는것이 없는 척박한 고장에서 아버지마저 일찍 여의고 길가의 막돌처럼 구울며 살아왔다. 그러던 그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준 품은 고마운 어머니조국이였다.

해방된 조국은 그에게 배움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중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그를 사범전문학교로 떠나보내며 어머니는 말했다.

《나라덕에 네가 상급학교엘 다 가는구나. 잊지 말아라. 은혜에는 보답이 따라야 한다는걸.》

그후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품이 있었기에 로정옥동무는 전화의 불구름속에서도 학업을 중단함이 없이 마음껏 배울수 있었고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때에도 해빛밝은 대학교정에서 재능의 나래를 더 활짝 펼칠수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머니가 사는 군으로 온 그는 편의봉사관리소에 배치받았다. 당시까지만도 작은 군에는 화학공장이나 경공업공장이 별로 없었다.

로정옥동무가 첫 출근으로 관리소일군의 방에 들렸을 때였다. 전화를 하고있던 그 일군이 갑자기 무슨 일때문인지 어성을 높이는것이였다.

《동문 관리소에 물자에비가 바닥났다는걸 모르오? 어찌겠소. 모자라는대로 손님들에게 량해를 구하며 봉사하는수밖에.》

로정옥동무는 그날 봉사단위들에서 비누나 구두약같은 소비품이 모자라 다른 나라의것을 수입해다 쓰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마음이 가볍지 않았다. 며칠후 종업원회의에서 한 리발사처녀가 손님들이 머리를 깎은 다음 크림이나 비누를 찾을 때 제일 안타깝다고 하였을 때에는 그 말이 자기에게 하는 질책처럼 여겨졌다. 그는 여러날째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화학을 전공한 대학졸업생이다. 생활에서 가장 초보적인 필수품조차도 남의것을 써야 하는 이 현실을 외면한다면?

아니다. 나라의 덕으로 대학공부를 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비로소 그는 결심했다.

수입에 의존하던 소비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그의 제의는 관리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로정옥동무의 가슴속에 무엇이 끓고있는지 다는 몰랐다.

그것은 이 땅의 공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스스로 새겨안은 량심이고 자각이였으며 보살펴주고 키워준 나라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불타는 지향이였다. …

며칠후 관리소건물 한쪽귀퉁이에 자그마한 화학실험실이 꾸려졌다.

실험실이래야 고작 12㎡가 되나마나 하였다. 그러나 명석한 두뇌로 하여 소학교시절부터 신동으로 불리우고 대학적인 수재로 이름을 날렸던 로정옥동무는 반드시 자기 지방에 흔한 원료로 다른 나라의것에 못지 않은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낼수 있다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하여 다섯달만에 질좋은 크림과 구두약을 만들어내고야말았다.

그러던 주체58(1969)년 가을 어느날 로정옥동무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영광을 받아안게 되였다.

함경북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그가 만든 고급구두약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을 보아주시고 참 잘 만들었다고, 지방의 원료원천으로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던것이다.

그는 끓어오르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지방의 한 평범한 기술자가 해놓은 자그마한 일마저 그처럼 높이 평가해주시는 뜨거운 믿음과 사랑에 목이 메여올랐다. 그후 군에 화장품공장이 일떠서고 공장 기술준비실 실장으로 임명된 로정옥동무는 높은 실력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과학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수많은 국가발명권과 특허를 받고 인민소비품생산에 크게 기여했다.

50여년전 그날의 자그마한 화학실험실,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 사연도 깊은 그 실험실앞에 조용히 서본다. 그리고 그날의 로정옥동무의 불같은 호소를 다시금 가슴에 새겨본다.

그도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였고 한가정을 돌봐야 할 가정부인이였다. 만일 그가 대학졸업증을 시집을 잘 가기 위한 간판으로, 아늑하고 기름기 흐르는 가정생활을 위한 그 어떤 지참품으로 여겼다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 과학연구사업에 선뜻 들어설수 있었겠는가.

우리 여기에 로정옥동무가 한생 가슴에 품고 사는 인생의 지론을 적는다.

나라의 덕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살든,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하든 자기 할바를 해야 하고 돌밭이나 날바다에서도 자기의 창조물을 내놓을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조국앞에 지닌 지식인의 의무이고 량심이다!

땅과 공기, 물만 있다면

사람들은 로정옥동무가 만든 제품들을 놓고 흔히 이렇게 말하군 한다.

늘 보아오던것, 생활에서 평범하게 대하던것들을 가지고 이런 쓸모있고 질좋은 제품을 만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화학의 세계란 참 흥미있고 신묘한것이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흥미진진하고 신비한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 바친 지혜와 열정에 앞서 수십년세월 로정옥동무의 심장속에 바위처럼 들어앉은 굳은 신조에 대해서는 미처 다 모른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겨울 어느날 북방의 하늬바람에 눈가루가 뽀얗게 흩날리는 저녁무렵이였다. 눈보라세찬 길녘에 석양빛을 받아 두 그림자가 길게 비꼈다.

《엄마, 정말 또 가야 하나?》

남자애의 울음섞인 목소리.

《현욱아, 엄마가 인차 갔다오니 그새 옆집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녀인의 목갈린 대답소리.

아들은 점점 멀어져가는 어머니가 눈발에 싸여 보이지 않을때까지 오래도록 길가에 서있었다. 그러는 아들을 뒤돌아보고 또 보며 녀인은 역전쪽을 향해 내처 걸음을 옮기였다.

…

그렇게 3년세월이 흘렀다. 현대적인 향생산설비에 들어가는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로정옥동무는 한해에도 몇차례씩 수백리 먼곳에 떨어져있는 제강소를 찾군 했다. 이제는 퍼그나 친숙해진 제강소로동자들이 아주머니가 꼭 이런 걸음을 해야 하는가고 물을 때마다 로정옥동무는 조용히 말했다.

《물론 공장에 자재일군이 없는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향료를 개발할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전 기술자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 불수강이 있어야 정류탑을 세워 우리 향을 뽑을수 있을게 아니나요.》

우리의 향료를 개발하기 위한 나날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새겨졌던가.

불수강생산에 필요한 유휴자재를 수집하기 위해 로동자들과 함께 지새우던 밤들이며 향생산설비를 싣고오던 도중 뜻밖의 사고로 병원에 실려왔을때 제강소로동계급이 수백리 먼곳에서 보내온 귀한 약재와 따뜻한 위문편지를 받아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잊지 못할 저녁, 그 나날 늘 외지에서 맞군 하던 자식들의 생일이며 명절들…

고심어린 노력으로 향생산설비를 마련했지만 보다 어려운 과제는 앞에 있었다. 로정옥동무가 자기 지방에 흔한 향초에서 질좋은 향료를 뽑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던 어느날이였다.

옷기관에서 내려왔다는 한 사람이 실험실에 들려 로정옥동무에게 느닷없이 물었다.

《향료개발을 위해 동무가 연구하고있다는 향초가 어떤것들이요?》

《고수와 창포를 비롯해서 다 우리 지방에 흔한 향초…》

로정옥동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일군은 말했다.

《그래 그런 풀로 정말 다른 나라의 장미향을 릉가하는 향료를 뽑을수 있소? 욕망은 결코 과학이 아니요. 난 동무가 심사숙고하길 바라오.》

권고보다는 강압적인 어조였으나 로정옥동무는 주눅이 들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그러나 당당히 말하였다.

《우린 반드시 우리 땅에서 나는 향초로 다른 나라의 장미향못지 않은 향료를 개발해낼것입니다!》

신념은 현실로 검증되였다.

로정옥동무는 끝내 고수풀에서 장미향성분인 게라니올을 추출해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얻은 향료는 수입품에 비해 원가가 5%밖에 들지 않았고 그 질도 높았으며 공장에서는 해마다 4t의 향료를 수입하는데 쓰던 귀중한 외화를 절약하게 되였다.

공장이 회령화학일용품공장과 합쳐져 화장품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일용품들을 생산해야 할 과제가 나섰을 때였다. 나라가 아직 고난의 흔적을 털어버리지 못한 어려운 때여서 빨래비누의 원료인 기름이 엄청나게 부족했다.

로정옥동무는 이때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비누생산에 피마주기름을 리용할것을 결심한 그는 먼저 앞지대작물로 알려진 피마주재배를 위해 식물성장촉진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어느날 문득 실험실로 한 사람이 들어섰다. 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이였다.

《정옥동무, 요즘 힘들지? 아직 우리 지방에서는 피마주를 심어본적이 없다는데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이 어찌 헐하겠소. 하지만 우리 꼭 지방원료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뜻을 관철하자구. 자, 이걸 한번 참고해보오. 다른 나라에서 널리 쓰이고있다는 식물성장촉진제 〈록색보〉요.》

순간 로정옥동무는 눈굽이 뜨겁게 달아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늘 자기의 곁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고마운 당일군이였다.

시당위원회의 적극적인 방조와 로정옥동무의 고심어린 노력은 드디여 알찬 열매를 맺었다. 다른 나라의것보다 월등한 식물성장촉진제가 연구도입되여 회령시에서는 북방의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피마주가 무성하게 자라는 이채로운 풍경을 펼칠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로정옥동무는 뒤이어 피마주기름의 분자구조를 변경시키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피마주기름 그자체는 특수분자구조를 가지고있어서 빨래비누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세척력과 굳기를 보장할수 없었던것이다. 수십수백번의 실험과 실패는 오랜 기간의 화학실험과정에 육체가 쇠약해진 그를 끝내 쓰러뜨렸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침상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였다. 일부 일군들이 연구사업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자 피마주기름으로는 절대로 빨래비누를 만들수 없다, 설사 만든다 해도 수입제품보다 못할것은 뻔한데 이제라도 빨리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는것이였다.

그날 로정옥동무는 밤늦도록 잠들수 없었다. 눈만 감으면 수십년전 자기가 만든 소박한 인민소비품들을 몸소 보아주시고 그토록 만족해하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백번 해서 안되면 천번을 다시 해서라도 기어이 남의것에 못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내리라.)

비상한 각오와 열정속에 날과 달이 흘렀다. 로정옥동무는 처음에는 류산화법으로, 다음에는 산, 알카리복합변성법으로 피마주기름변성기술을 해결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비누는 질이 높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나마도 큰 성과라고 기뻐했으나 로정옥동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보다 원가가 적게 들면서도 제품의 질이 반드시 다른 나라의것을 압도해야 했다.

탐구와 사색을 거듭하던중 그는 마침내 반응기속에 니크롬선을 설치하여 압력, 온도, 시간의 차이에 따라 포화기름산과 불포화기름산을 다같이 얻어냄으로써 피마주기름 하나로 비누의 응고점을 맞출수 있는 새로운 변성법을 찾아내게 되였다. 어느 단위에서나 질좋은 빨래비누를 손쉽게 생산할수 있는 《피마주기름의 가압열변성에 의한 비누제조방법》은 그후 국가발명권을 받았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기나긴 세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난관을 달게 여기며 과학탐구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로정옥동무,

그의 노력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지금 회령시에서는 자기 땅에서 나는 자원으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과 화학제품들을 생산하여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덕을 보고있다. 빨래비누와 구두약, 샴푸같은것은 그 질이 높아 누구나 즐겨 쓰고있다. 언제인가 시의 한 일군이 로정옥동무가 만든 구두약을 수입제품으로 잘못 알고 사람들에게 《역시 물건너온게 다르긴 달라. 이 구두를 보우. 얼마나 윤기가 흐르나.》하고 이야기했다가 폭소를 터치게 한것은 한가지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당이 바라는 참된 애국자, 시대가 부르는 참된 지식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로정옥동무의 한생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된다.

땅과 공기, 물만 있으면 못 만들어낼것이 없다는 신념과 배짱, 하나를 창조해도 남의것을 딛고 올라서겠다는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사람이야말로 애국자중의 애국자, 실력가중의 실력가가 아니겠는가.

발명은 명예를 위한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로정옥동무를 가리켜 박사라고 부른다. 그러나 실지 그의 앞가슴에는 박사메달이 없다.

학위학직은 물론 명예칭호나 남다른 표창도 없다.

로정옥동무의 딸이 소학교에 다니던 어느해 가을이였다. 웬일인지 볼이 잔뜩 부어가지고 학교에서 돌아온 딸애가 어머니에게 다짜고짜로 물었다.

《엄만 왜 박사가 못되나요?》

《?》

《오늘 자기 아버지가 박사가 됐다고 우쭐대는 아이를 콱 쏴주었어요. 우리 엄만 박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네가 쓰는 비누랑 잉크랑 마지크도 다 우리 엄마가 만든것이라고.》

로정옥동무는 그러는 딸을 품에 그러안고 말했다.

《은선아, 엄만 비록 박사는 못되여도 사람들이 이 엄마가 만든 물건을 쓰면서 기뻐할 때가 제일 좋더구나.》

근 20년간 중앙과학기술축전과 전국과학기술발표회에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은것으로 하여 언제나 높은 평가를 받고 1등상도 여러번 받은 로정옥동무였다.

그때마다 그는 창조의 보람을 가슴뿌듯이 느끼였고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을 다지군 했다. 하면서도 언제 한번 자기가 박사학위를 수여받을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지 않았다.

자기의 헌신과 탐구의 열매가 나라에 덕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것을 인생의 가장 큰 락으로 여기였기에 그는 어느 하루도 인민소비품생산과 관련한 연구사업과 도입문제로 바쁜 나날을 보내지 않은적이 없었다.

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새로운 연구과제를 맡아안고 그것을 완성할무렵이면 또 다른 연구사업을 시작하고.

몇해전 로정옥동무가 새로운 갈탄연소첨가제를 연구완성했을 때였다.

발열량이 적은 갈탄이나 버럭탄도 얼마든지 땔감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 이 연구성과는 착상이 기발하고 실용가치가 높은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호평이 대단했다.

주민들의 땔감문제를 푸는데 크게 기여한 제품은 그후 진행된 전국적인 과학기술전시회 및 발표회에서 특허증서를 수여받았다.

그러던 어느날 로정옥동무의 아들 김현욱동무가 실험실에 들어서며 물었다.

《어머니, 알고계세요? 이제 멀지 않아 평양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답니다.》

로정옥동무는 아들이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지 않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이른아침이였다. 일찍부터 일어나 부산을 피우던 자식들이 무엇인가를 꿍져들고 문밖을 나서려고 하는 순간이였다.

여느때없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들을 멈춰세웠다.

《아서라. 그 증서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겠다는거냐?

그건 너희들이 투정질이나 할 때 쓰는 치레거리가 아니다.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한 물건은 더욱 아니구.》

그날 로정옥동무는 발명증서와 특허증서, 새 기술도입증묶음을 앞에 놓고 자식들을 준절히 타일렀다.

《난 이 증서들을 볼 때마다 도리여 죄책감을 느끼군 한다. 수십년전 어버이수령님께서 내가 만든 제품들을 보시며 하신 유훈을 다 관철하자면 아직도 멀었는데 이런 증서가 아무리 많다 한들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얼마후 실험실쪽에서는 로정옥동무가 돌리는 반응기의 웅글은 동음이 간간이 들려왔다. 몇달후 그곳에서는 수입산 아크릴대신 국내산원료를 리용하면서도 질적지표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것을 릉가하는 새로운 유기질외장재가 개발되였다. …

인생에는 화려한 명예나 값높은 칭호도 소중하다.

하지만 그보다도 조국을 위한 헌신과 창조물에서 더없는 삶의 보람을 느끼며 좋은 날, 행복했던 시기는 물론 그토록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때에도 공장이 만부하의 동음속에 100여가지의 인민소비품을 쨍쨍 생산하여 나라에 보탬을 주도록 한 로정옥동무의 삶이야말로 누구나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값높은 생이 아니랴.

* *

얼마전 회령시의 거리와 마을이 몰라보게 변모되였다.

사람들은 건물과 살림집들이 색갈고운 외장재로 단장되니 도시전체가 새로와보인다고 누구나 기쁨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방수성과 부착력이 뛰여나고 나노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외장재를 중앙제품이나 수입품으로만 알고있었지 자기 지방의 한 로기술자가 고심어린 노력으로 개발한 제품인줄은 미처 모르고있었다.

로정옥동무는 오늘도 이른아침과 저녁시간마다 자기의 소중한 구슬땀이 슴배인 거리와 마을을 돌아보며 심장의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신 영광의 땅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빛내이리라!)

본사기자 리남호

제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제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자들이 25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일가분들의 애국적인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방문을 마치고 싱가포르대표단 성원 팩입송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김일성동지와 그이의 일가분들은 나라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신 위대한 혁명가들이시다고 말하였다.

벌가리아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벌가리아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벌가리아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로 차건일동지가 임명되였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다음주에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들이 진행된다.

27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중경기관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체육단, 김책공업종합대학체육단, 평양건축종합대학체육단, 평양기계종합대학체육단,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체육단,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체육단, 조선체육대학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유술대항경기가 벌어진다.

한편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 1급 남자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27일 4.25:소백수
압록강:초병
28일 기관차:묘향산
리명수:선봉
29일 봉화산:경공업성
홰불:소백수
30일 월미도:초병
4.25:묘향산
10월 1일 압록강:선봉
2일 봉화산:소백수
경공업성:초병
3일 홰불:묘향산
월미도:선봉

【조선중앙통신】

콩크리트층막치기와 내외부미장 완성, 지붕공사 80%계선 돌파

라선시 피해지역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이 라선시 피해지역 1300여세대 살림집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라선시피해복구전투장을 현지지도하신 후 단숨에의 정신으로 폭풍쳐 내달려 살림집콩크리트층막치기와 내외부미장을 끝내고 지붕공사의 80%이상을 해제낀 기세를 늦추지 않고 전반적인 공사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위력을 계속 떨치며 대고조진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얼마전 라선시피해복구전투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라선시피해복구는 전례없이 방대하고 아픔찬 전투이지만 자신께서는 인민군대를 믿는다고 하시면서 이 땅우에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인민군대가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라선시 선봉지구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전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립체전, 섬멸전, 속도전을 벌려 살림집들과 공공건물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설계의 요구대로 건설에서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며 살림집구역과 주변지대정리사업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인민무력부 현장지휘부에서는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선봉지구 백학지역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건설장에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을 가슴에 새겨안고 인민군장병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살림집건설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붉은 기발들이 휘날리고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부르는 직판선전물들이 곳곳에 즐비하게 세워진 건설장마다에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혁명군가의 우렁찬 소리가 살림집건설장을 들었다놓으며 세차게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살림집건설장에 모시였던 조선인민군 김영군소속부대 인민군장병들이 살림집건설의 맨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부대에서는 군인대중의 집체적지혜를 합쳐 새로운 건설공법들을 적극 찾아내여 건설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자재보장을 선행시키고있다.

수송이자 곧 건설속도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자동차운전사들은 자검자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물동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부대의 장병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에 자기들이 맡은 살림집콩크리트층막치기와 내외부미장을 끝낸데 이어 문틀달기를 다그치면서 지붕공사를 해제끼는 전례없는 건설속도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립체전의 방법으로 온돌방구들놓기와 부엌꾸리기, 지대정리를 빠른 속도로 다그치고있다.

부대지휘판들은 매일 과제수행정형을 현장에서 전투총화처럼 엄격하게 진행하고있다.

조선인민군 윤선일소속부대 인민군장병들도 전투성과를 부쩍 올리고있다.

그들은 당앞에 다진 결의대로 살림집건설을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기어이 완공할 마음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드센 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이들은 블로크가 떨어지자 새로운 건설공법을 받아들여 벽체축조를 하루밤새에 끝낸데 이어 철근조립속도를 부쩍 높이면서 콩크리트층막치기와 층막용부재생산을 배로 끌어올리였다. 그리하여 콩크리트층막치기와 내외부미장, 각종 규격의 문틀달기, 지붕공사를 기한전에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인민군 문종철소속부대, 허동명소속부대를 비롯한 여러 부대의 장병들은 공사량이 방대하고 공사기일이 짧은 조건에 맞게 군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들이대면서 부대별경쟁을 조직하여 전반적인 공사실적을 높이고있다. 이들은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며칠은 실히 걸려야 할 작업과제들을 빠른 기간에 해제끼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전시물자보장과 같은 수송체계를 세워주시고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 능률높은 건설기계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거듭되는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이 인민군장병들을 위훈창조에로 산악같이 불러일으키고있다.

기발하고 합리적인 공법들을 창안도입하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완공을 눈앞에 둔 살림집들이 련이어 자태를 드러내보이고있다.

조선인민군 박덕규소속부대 인민군장병들이 능률적인 공법으로 콩크리트층막치기와 내외부미장을 계획보다 3일 앞당겨 끝낼 때 조선인민군 김일섭소속부대 인민군장병들은 지붕공사를 비롯한 전반적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어 완공의 날을 앞당기고있다.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은 2~3일은 걸려야 할 작업과제를 하루밤사이에 해제끼고 하루평균 100여동의 살림집들에 대한 콩크리트층막치기를 진행하면서 내외부미장과 지붕공사를 동시에 내밀어 매일 계획된 공사과제를 2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각 부대의 녀성군인들이 담차고 지혜로운 조선녀성의 기질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이들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인민사랑이 하루빨리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가닿게 할 불같은 마음안고 남성군인들 못지 않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 해제끼면서 섬세하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과제를 손색없이 완성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명령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하는것을 체질화하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은 립체전, 섬멸전, 속도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각종 건구들과 제재품들을 앞질러가며 마련하는것과 함께 살림집지역의 도로건설과 주변정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살림집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의 전투성과는 라선시인민들뿐아니라 당창건 일흔돐을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고있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오늘의 하루하루를 비상한 창조와 혁신으로 빛내이자

우리의 멋, 우리의 긍지가 여기에 있다

강원도자력갱생전시관을 돌아보고

얼마전 우리는 강원도에서 자력갱생전시관을 새로 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을 찾게 되였다.

천리마세로 두드러지게 부각된 전시관현판이 우리의 눈에 확대되여 안겨왔다.

자력갱생전시관!

저도모르게 가슴뿌듯해지게 하는 떳떳하고도 자랑스러운 그 글발과 더불어 커다란 관심을 안고 우리는 전시관안으로 들어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오늘도 래일도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전시관에 들어선 우리는 훌륭히 꾸려진 내부환경에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정갈하게 꾸려진 내부의 거울같은 바닥타일이며 벽과 천정의 특색있는 마감장식, 현대적미감이 나는 나들문들…

이 모든것이 도에서 자체로 생산한 마감건재와 건구들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동행한 일군의 말에 우리의 놀라움은 컸다.

《우리 강원도사람들은 이런 멋에 창조의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이제 돌아보느라면 그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것입니다.》

커다란 감동속에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1관으로 향하였다.

최근 몇해사이에 강원도에서 새로운 자력갱생기지들을 수많이 일떠세웠다고 하면서 일군은 우리를 여러가지 흑연제품들이 전시된 전시대앞으로 이끌었다.

지금까지 도에 없는것으로 알려졌던 흑연을 새로 찾아내고 자체의 힘으로 광산도 개발하였는데 지금 그 은이 크게 나타나고있다고, 이 흑연을 가지고 우리 식의 흑연전극을 생산하는 공정까지 꾸려놓으니 이제는 철강재생산에 필요한 모든것을 도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여 생산정상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생산능력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긍지에 넘쳐 전하는 일군의 이야기…

놀라운 성과는 이뿐만이 아니였다.

도의 과학기술력량으로 새로 찾아내고 도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 고성백토광산에서 나오는 고성백토는 고급도자기생산과 고급전기자기와 건설자기생산, 알루미나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귀중한 원료이다.

이로써 도에서는 각종 건구재료, 합금재료, 전력공업재료, 강철공업의 첨가제 등을 도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새로 창조된 고속소성용 내열사기로라봉생산공정과 마그—알루미나—티탄내화벽돌생산공정…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전시된 제품들을 돌아보느라니 걸은 비록 번쩍거리지 않아도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이 력력히 어려있어 더욱 빛을 뿌리고있는 귀중한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여서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어 우리는 2, 3관에 꾸려진 마감건재전시대들에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도에서는 자체의 원료에 의거한 강력한 마감건재생산기지들을 꾸려놓고 마음먹은대로 필요한 마감건재들을 무엇이나 다 만들어내고있습니다.》

우리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는 일군의 말이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기능성유리마감건재인 온백색빛반사유리생산공정, 수지복합타일과 고속소성타일, 미정질유리타일을 비롯한 각종 타일생산공정, 각종 건축장식품생산공정, 벽과 천정, 바닥처리용의 갖가지 마감건재생산공정, 위생자기생산공정, 벽돌생산공정, 각이한 용도의 세멘트생산기지들을 비롯한 수많은 자력갱생기지들에서 지방원료에 의거한 우리 식의 마감건재들을 다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고 한다.

마감건재의 질을 높이고 건재의 다양화, 다종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마감건재를 자체로 생산보장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여기 강원땅에서 남김없이 과시되고있었다.

이밖에도 전시대들에는 금속건구와 가구생산기지들에서 나오는 자력갱생제품들이 꽉 차있었다.

참으로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귀중한 재부들을 제손으로 창조해가는 강원도인민들의 긍지와 자랑은 끝이 없는듯싶었다.

알아보니 전시관에는 과학기술이라는 롱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자력갱생하여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창조하여오는 과정에 도에서 최근에 이룩한 100여건의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이 220여종에 거의 1 000점에 달하는 자력갱생의 산모습으로 전시되여있었다.

강원도에서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는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을 안고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가 없고 돌지 못할 난관이 없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도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었다.

강원도자력갱생전시관을 돌아보고 우리는 자력갱생의 참뜻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기게 되였으며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우리가 주인이 되여 이 땅우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일떠세워야 할 강성국가는 바로 자력갱생의 강성국가이라는것을.

우리 혁명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가 함축되여있고 조국번영의 찬란한 미래가 비껴있는 자력갱생의 궤도를 따라 나아갈 때 이 땅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한생의 념원인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지상락원이 자랑찬 현실로 펼쳐지게 되리라는것을.

강철웅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나갈 열의

평안북도에서

우리 민족의 오랜 력사와 우수한 문화전통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시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우리 나라를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륭성번영하는 강국으로 빛내여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에서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도안의 력사유적건물들에 대한 복구복원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유적유물들을 해당 사회와 력사적시기의 특성에 맞게 옛 모습을 살려 원상대로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잘 관리하는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이며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들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평안북도에는 의주남문과 통군정, 천주사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뜨겁게 깃들어있고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 유구한 력사를 보여주는 력사유적건물들이 수십개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를 받아안은 도당위원회에서는 력사유적건물들에 대한 복구복원사업을 민족문화유산보호부문에 깃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틀어쥐고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순결한 량심과 성실성,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힘있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해나갔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깃들어있는 력사유적건물들에 대한 복구복원사업을 선차적으로 진행하는것을 도안의 전반적력사유적건물들에 대한 복구복원사업의 중심고리로 정하고 여기에 먼저 력량을 집중한 다음 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 관철에로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사업에 관심을 적게 돌리고있는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사상관점을 뿌리뽑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가기 위한 드세찬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갔다.

도당위원회의 구체적인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의 일군들과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로 강력한 건설력량이 편성되고 필요한 자재들이 책임적으로 선행되게 되였으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도의 책임일군들부터가 현장에 내려가 건설자들과 전투를 같이 벌리면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정치사업과 기술적지도를 앞세우는 한편 필요한 조건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해나갔다.

결과 평안북도안의 수십개의 력사유적건물들에 대한 복구복원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으며 민족문화유산보호부문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민족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부르며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새겨주며 이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본사기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서 틀어쥔 두가지 문제

회창군의약품관리소에서

회창군의약품관리소에서는 10여종의 주사약들과 여러종의 고려약들을 많이 생산하여 군안의 주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있으며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에게 많은 보약들을 공급하고있다.

이 단위는 도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것으로 하여 자재, 원료보장조건은 물론 전기보장조건도 그 어느 단위보다 어렵다.

하다면 성과의 비결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치료예방사업의 기본수단의 하나인 의약품생산은 우리 나라 인민적보건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물질적기초입니다.》

10여년전 이곳 관리소소장으로 배치되여온 양상길동무는 관리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의약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관리소의 일군들은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은 조건에서 높은 목표를 짧은 기간에 점령하기 위한 방도를 과학기술중시에서 찾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여기서 이들이 잘한것은 먼저 기술자들을 중시하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대중을 각성시키고 분발시킨것이다.

관리소에는 남달리 기계속내에 밝은 기술자가 있었다. 일군들은 지난 시기처럼 과학기술사업을 기술자들의 사업으로만 국한시킨것이 아니라 그 기술자를 책임자로 선정하고 약제사, 창고장을 비롯한 다른 직종의 종업원들을 망라하는 연구조를 내왔다.

이렇게 하니 무엇이 좋았는가.

생산설비를 만들어내는데는 제기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여러 종업원들이 함께 연구사업을 진행하니 필요한 부속품들과 자재 등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였으며 결과 설비제작기일이 훨씬 줄어들게 되였다.

또한 설비제작과정에 종업원들속에 남아있던 기술신비주의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설비가 실지 생산에서 은을 나타내는것을 보며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사업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후 저마끔 새로운 창의고안들을 내놓았다.

관리소의 일군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전개해나가는데서 잘한것은 다음으로 종업원들의 착상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적극 떠밀어준것이다. 관리소에서는 새로운 착상을 제기한 종업원들을 책임자로 선정하고 기술자와 해당 분야에 조예가 있는 몇몇 종업원들을 보조성원으로 임명하였다. 이것은 아직은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어린 종업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의 실력을 빠른 시일안에 끌어올리도록 하는데서 효과가 컸다.

그러면 관리소일군들의 이런 사업방법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서 어떤 성과를 안아왔는가.

50대 중엽 나이인 창고장 김관기동무는 오랜 기술자인 부원 리승춘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연구조의 한 성원이 되여 자동병세척기와 자동암풀충전기를 개발하던 나날에 많은 기술지식을 배워 고려약제분기의 실수률을 높이는데서 관건적인 1차분쇄기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증류수기자동안전차단기와 붉은벌조작체계에 의한 의약품관리프로그람을 내놓은 약제사들인 리문혁, 황은철동무들의 경우도 다를바 없다.

비단 이들뿐이 아니다.

종전의 주사약암풀충전기의 속도보다 몇배나 빠른 수자식자동암풀충전기의 제작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대부분의 설비들을 태양빛전지판을 리용하여 가동할수 있게 한것을 비롯하여 관리소에서 이룩된 혁신적성과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회창군의약품관리소에 대한 취재를 통해 우리는 자재, 원료, 전기 등이 해당 단위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물질적조건들이기는 하지만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는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갈 때 얼마든지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방경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과학연구사업에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농업과학원 농업생물학연구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실력향상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참관사업

함흥고등예술전문학교에서

참관사업은 교육교양을 목적으로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하다면 우리가 함흥고등예술전문학교 민족기악강좌에서 조직하는 참관사업에 주목을 돌리게 된것은 무엇때문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교육은 주체예술의 미래를 가꾸는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입니다.》

강좌장 전미혜동무를 비롯한 강좌교원들의 참관조직에서 특징적인것은 먼저 참관준비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는것이다.

강좌에서는 주마다 진행하는 교원합평회에서 학생들의 연주형상에서 나타나고있는 편향들을 지적하고 특별히 힘을 넣어야 할 학생들을 선정한 다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서 참관대상을 선정한다.

다음 참관조직에 앞서 이번 참관에서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알려준 다음 모든 학생들이 두가지 이상의 질문들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한마디로 같은 민족악기라도 주법이 서로 다르고 학생들마다 개성이 다른 조건에서 매 학생들이 참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참관에 림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참관조직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학생들의 개성을 적극 살리면서도 그들의 원리적인 인식능력을 높여주는 방향에서 진행된다는것이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학생들의 예술적사고와 음악적표현이 하나로 집중되고 통일되도록 이끌어주는것은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완벽하게 형상해야 하는 집체적음악형상창조에서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언제인가 학생들에 대한 연주형상지도를 하던 강좌장 전미혜동무는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그것은 학생들의 연주형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편향들이 다름아닌 그들의 성격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는것이였다. 즉 성격이 비교적 온화한 학생들인 경우에는 전반적선률형상이 안정되고 고르로우나 폭발부분이 강렬하지 못한 편향이 있고 반대로 성격이 패활한 학생들의 연주형상에서는 음의 떨기가 잘 보장되지 못하고 산만한것이 결함이였다.

이런 결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안삼블의 종합적이며 통일적인 형상을 보장할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을 우리 당이 바라는 유능한 예술인재로 키울수 없었다.

강좌의 교원들은 여러 대상들에 대한 참관과 함께 축구, 배구를 비롯한 체육경기관람에서도 하나의 현상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연주형상과 밀접히 결부하여 해설해주어 학생들이 자신들의 성격상결함과 그 극복방도를 스스로 찾고 연주형상의 표리들을 원리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능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실례로 하나의 미술작품을 놓고도 이것을 이루는 매 형상요소들의 유기적이며 조화로운 결합에 의해서만 이런 훌륭한 형상이 창조될수 있으며 만약 여기서 한가지라도 미흡할 때 작품의 전반적인 형상은 물론 그 사상주제적내용을 밝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등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였다.

체육경기관람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공격과 방어를 잘 배합하고 득점결속을 잘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처럼 연주형상에서도 선률의 전반적흐름과 함께 절정부분에서의 폭발을 잘해야 완벽한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원리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런 다양한 과외교육교양방법은 학생들의 실력향상에서 뚜렷한 전진을 가져왔다.

우선 학생들이 주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인식한데 기초하여 작품에 대한 옳바른 표상을 가지고 자신있게 연주형상에 달라붙게 되였다.

또한 하나의 음악작품을 놓고 그 사상주제적내용과 양상에 맞게 소리색갈과 떨림 등 형상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요소들을 자체로 판별할줄 아는 예술적사고능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게 되였으며 형상수준은 날을 따라 세련되여갔다. 보다 중요한것은 학생들속에서 고상한 도덕품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게 된것이다.

학생들의 구체적인 심리와 개성에 맞게 진취적이고 혁신적으로 교육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갈 때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이 이들의 참관사업을 놓고 우리가 찾게 되는 결론이다.

김성민

공화국에 비법입국하였다가 단속된 미국 뉴욕대학 학생

기자들과 회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비법입국하였다가 단속된 남조선계 미국인 뉴욕대학 학생 주원문이 25일 평양에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주원문이 발언하였다.

그는 지난 4월 공화국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비법입국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화국정부에서는 범죄자인 자기를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해주었으며 현실을 체험하고싶어하는 소원을 풀어주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공화국에 대하여 느낀 감정과 견해를 사실그대로 알림으로써 공화국에 대한 미국사회전반의 인식이 얼마나 외곡된것인가를 까밝히고싶어 여러 기자들과 만나게 해줄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것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이다.

나는 평양시를 비롯하여 여러곳을 돌아보는 과정에 제일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모두 일반시민들을 위한것으로서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인민대학습당만 보아도 전민이 학습하는 규모가 대단히 큰 도서관으로서 특정한 사람들만이 갈수 있는 곳이 아니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무상으로 각종 도서들을 읽고 외국어, 음악 등 여러 과목들을 배우고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학업에 열중하고있다. 현대적인 전자도서판에는 인터네트와 국부망을 사용할수 있는 콤퓨터들이 있고 교원들과 학생들이 피로를 풀수 있는 훌륭한 수영관도 있다. 평양학생소년궁전도 돌아보면서 재능을 가진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의 관심속에 마음껏 희망을 꽃피울수 있다는것을 알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학교들과 박물관들을 비롯하여 내가 돌아본 건축물들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것이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 김정은원수님의 발기와 지도에 의해 건설되였다는것이다. 후대들에 대한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사랑은 최신식의료설비들을 갖춘 옥류아동병원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만경대고향집을 돌아보면서 김일성주석님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으며 그분께서 집필하신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는 과정에 주체사상이 어떻게 창시되고 그것이 공화국의 사회현실에 어떻게 구현되여왔는가를 리해할수 있었다.

그는 지방주권기관의 대의원들을 선거하는 모습도 보게 되였다고 하면서 선거장들이 서로 경쟁을 벌리는 마당이 아니라 인민들이 후보자들을 지지하고 후보자들은 사회를 위하여 복무할것을 약속하는 장소였다고 말하였다.

사회주의사회인 조선에서 체험한 모든것은 자기의 일생에서 가장 놀랍고 따뜻한 추억으로 남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명백한것은 서방이 떠드는것처럼 공화국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인권문제》나 《폭압정치》를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수령과 인민이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미래를 락관하면서 살며 일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신천박물관에서 조선전쟁을 공화국이 아니라 미국이 일으켰다는것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증거물들과 전쟁기간 미군이 감행한 만행자료들을 보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학살된 어린이들의 묘에 꽃다발을 놓으면서 나는 고등학교에서 받은 수업들이나 다른 기회들에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는 왜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하여 조선인민이 품고있는 적대감에 대해 리해할수 있었고 특히 미국이 아직까지도 자기의 죄과를 인정하지 않고있는것으로 하여 조미관계가 더 악화되고있으며 이것은 평화의 장애물로 되고있다. 우리 조선민족은 북에 있든 남에 있든 언어와 문화가 서로 같은 한겨레이다.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으며 온 겨레가 통일을 지향하고있는것만큼 70년동안 지속되여온 분렬상태를 끝장낼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였다.

나의 체험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 특히 미국과 남조선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바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고 정책을 전환할것을 요구한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북남사이에 이미 채택된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합의사항들을 불변의 지침으로 틀어쥐고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되기를 바란다.

이어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뛰여난 재능을 가진 인재육성에서 성과 이룩

개성시에서

개성시에서 인재후비육성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시에서는 유치원시기부터 중학교시기까지의 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뛰여난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키워내고있다.

교육부문의 일군들은 특이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잘 선발하는것과 함께 실력판정, 경험발표 등을 적극 조직하여 교원들과 교양원들의 교육수준을 부단히 끌어올리고있다.

시에서는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교수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모든 교육단위들에 일반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게 하고있다.

지난 기간 여러 부문의 경연들에서 금메달을 비롯한 수많은 메달과 표창장을 수여받은 개성제1중학교의 교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학생들에게 다방면적인 지식과 응용능력을 키워주고 사고능력을 계발시키기 위해 피타는 사색과 열정을 바쳐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제7차 전국제1중학교(외국어학원포함)학생들의 속독경연에서 이 학교 학생들은 금메달과 은메달을 쟁취하였으며 다파목경연에서도 우수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시안의 유치원들에서도 특이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고있다.

얼마전 원산시에서 진행된 제8차 뛰여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에 참가한 개성시의 유치원어린이들은 특등과 1, 2등의 자리를 차지하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에서는 거둔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뛰여난 실력을 가진 학생들과 재능있는 어린이들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한 교육교양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고있다.

석탄증산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공무기지

2.8직동청년탄광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탄광에서는 공무직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그쯘히 갖추어놓고 필요한 설비와 부속품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 생산적앙양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공무직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열의를 최대로 발동하고있다.

이곳 직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은 그 질이 높을뿐아니라 가지수도 다종다양하며 기술적지표에 있어서 전문기계공장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에 생산해낸 무동력전복기와 벨트콘베아의 부속품들, 각종 치차들과 전차차륜 등은 탄부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직장의 일군들은 생산량을 늘이고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짜고드는것과 함께 실천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고있다.

매달 각종 소재들을 척척 만들어 생산활성화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련대적혁신의 불길속에 선반작업반, 공구작업반을 비롯한 생산단위들에서 치차류, 전차차륜, 탄차바퀴와 소공구 등 석탄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수백종의 제품들이 나오고있다.

한편 직장에서는 태양열온실과 양어장, 축산기지운영을 잘하여 종업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여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군사적재침을 노린 불순한 《미싸일위협》타령

얼마전 일본방위성이 새형의 요격미싸일 《SM—3블로크 2A》의 대량생산준비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미싸일은 현재 해상《자위대》에 배비되여있는 《SM—3블로크 1A》의 개량형으로서 대기권밖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수 있다고 한다. 일본방위성은 그 실현을 위해 2016회계년도 예산에서 27억￥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할당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대량생산되는 이 미싸일들은 즉시에 실전배비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반동들이 우리의 《미싸일능력향상과 위협》을 운운하며 《북조선에 대항》하기 위해 새형의 요격미싸일대량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이다.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궤변이 아닐수 없다.

묻건대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협한단 말인가. 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군사대국화와 재침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일본에 대고 해야 할 소리이다.

물론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해치려는자들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 일격에 소멸해치울수 있는 현대적인 미싸일들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철두철미 자위를 위한것으로서 우리 공화국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라면 구태여 그에 대해 위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일본도 이것을 모를리가 없다. 일본은 불보듯 뻔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미싸일위협》설을 여론화하며 부잡스레 놀아대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불순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있지도 않는 사실까지 날조해가며 남을 서슴없이 걸고드는 체질적이며 병적인 악습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일본이 있지도 않는 《위협》을 걸고들며 새로운 미싸일의 대량생산의 필요성을 설교하고있는것은 별로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반동들이 저들의 미싸일이 우리와 대항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을 찍어가며 더욱 명백히 하고 또 새로운 미싸일의 대량생산으로 우리를 어쩔수 없게 만들수 있는것처럼 너스레를 떨며 여론을 오도하고있는 조건에서 그들이 노리는 불순한 목적에 대하여 까밝히지 않을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우리를 걸고든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와 주변나라들의 《위협》을 운운하며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해마다 발표하는 《방위백서》라는데서 우리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을 걸고들었고 새로운 무장장비의 구입이나 군사적조치가 필요할 때에도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떨거하군 하였다.

말그대로 일본에 있어서 《위협》설은 필요할 때마다 써먹는 하나의 수단으로 되였다. 바로 일본반동들은 이런 수법으로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갖추어왔다.

오늘 《자위대》는 무시할수 없는 위협한 전쟁세력으로 자라났다. 《자위대》는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무력의 구성요소들을 다 갖추었으며 정규무력과의 의미상차이는 이미 없어졌다.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 호위함, 소해함, 잠수함, 대형수송함 등 현대적인 함선들을 가지고있다. 항공《자위대》역시 세계적인 군사강국들의 수준에 못지 않다. 일본은 병력도 임의의 시각에 수백만대군으로 확대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놓고있다. 《자위대》의 장교, 하사관비률은 50%이상으로 유지되고있다. 이것은 일단 유사시 제2차 세계대전시기를 릉가하는 방대한 규모의 병력을 편성할것을 전제로 한것이다.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으며 그 운반수단을 완성해놓았다.

일본은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되였다. 이것은 많은 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더우기 최근 일본반동들의 움직임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신경을 예민하게 자극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바로 이것을 눅잦히고 저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의 《미싸일위협》에 대해 목청을 돋구어대고있다. 저들의 군사대국화가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것이며 따라서 《방어》를 위한것이라는것이다. 이것은 기만이다.

과거 패망의 《복수》를 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야망이다. 그들은 방대한 병력과 현대적인 무장장비에 의거한 선제공격의 방법으로 그것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이번에 일본이 새로운 미싸일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비하기로 결정한것도 명백히 선제타격을 노린것이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몇해전 일본은 미싸일방위운영의 《긴급대처요령》을 개정하였다. 그전에는 상대측이 일본을 향해 미싸일을 발사할 의사가 명확할 경우 무력공격사태로 인정하며 미싸일이 일본을 향해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수상의 승인을 얻어 방위상이 요격을 명령한다고 규정되여있었다. 그러나 《긴급대처요령》개정으로 방위상이 자체의 판단으로 미싸일발사를 명령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이 방어를 위한것이 아니라는것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일본은 복잡한 수속을 거치지 않고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나라에 미싸일을 날려보낼수 있게 되였다.

더우기 스쳐지나보낼수 없는것은 지금 일본에서 과거범죄력사를 외곡하면서 재침을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는 속에서 군사대국화와 재침이 국가정책으로 상정되여 추진되고있는것이다.

일본은 《일미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자위대》가 미국이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군사작전과정에 군사적지원을 할수 있게 만들어 사실상 참전권과 교전권을 복귀시켰다. 미국은 물론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명목으로 《자위대》가 해외에로 진출할수 있게 만든 안전보장관련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여 선제공격에 합법적으로 뛰여들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였다.

일본이 그 누구의 《위협》을 걸고 취하는 군사적조치들이 본질상 선제공격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틀어쥐고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일본은 우리 나라를 첫번째 공격목표로 정하고있다. 지난 세기처럼 조선반도를 타고앉고 그를 발판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타산이다. 일본이 우리의 《위협》을 꺼들며 반공화국소동에 그처럼 열을 올리고있는것도 그와 관련된것이다.

일본은 오산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의 조선인민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은 무진막강한 군력을 가진 군사강국이다. 우리는 현대적인 각종 타격수단들로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각에 결심한대로 침략자, 도발자들을 일격에 소탕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자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일본이 하내비처럼 섬기는 미국도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있다.

일본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나가고있다. 만일 일본이 우리의 조국땅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할것이며 민족의 쌓이고 쌓인 원한을 가슴후련하게 풀고야말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무모한 군사적망동을 부리며 무분별하게 날뛰지 말아야 한다.

리 학 남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악랄한 도발행위

며칠전 인간쓰레기들이 경기도 파주일대에 도적고양이처럼 몰래 기여들어 우리측을 향해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엄중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북남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내외의 기대가 높아가고있는 시기에 긴장격화를 유발시킬수 있는 이런 적대행위가 나타난것은 도저히 묵과할수 없다.

문제는 이번 삐라살포놀음 역시 우연히 감행된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정세의 국면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발생하는 이러한 도발사건들이 북남관계에 얼마나 막대한 해독적후과를 끼쳤는가 하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이번에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한자들은 고향땅에서 씻을수 없는 범죄를 감행하고 도주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쓰레기들로서 지금은 미국의 개노릇을 하며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는 가련한 추물들이다. 미국은 북남관계가 개선되면 저들의 밥줄이 끊길가봐 몹시 안달이 나 하는 버러지같은 무리들의 심리를 리용하여 해마다 숱한 자금을 대주면서 이자들을 반공화국도발에로 개몰듯 하였다. 이번 삐라살포놀음도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것을 전혀 달가와하지 않는 불순세력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누구보다 책임을 느껴야 할 당사자는 남조선당국이다.

우리는 이미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를 성실히 리행하자면 정세의 안정적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대화상대방을 자극할수 있는 적대행위를 삼가하고 대화분위기를 살리는데 쌍방의 노력을 합쳐나가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아직까지도 대결관념에 사로잡힌자들이 북남관계개선에 저촉되는 도발행위를 계속 일삼고있다. 이번 삐라살포사건과 관련해서도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 《법률적인 근거없이 강제로 제한할수 없다는 립장》이니 하고 나자빠지고있다.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남조선당국의 이런 온당치 못한 태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수 없다.

반공화국삐라살포책동은 대화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로서 그것이 가져올것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 긴장격화밖에 없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에서도 《삐라 몇장때문에 정세가 8.25남북합의이전으로 되돌아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가고있다. 대화상대방을 자극하고 부정하는 삐라살포행위가 북남관계개선과 대화분위기에 전적으로 배치된다는데 대해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모를수 없다. 그들이 그 무슨 《표현의 자유》에 빙자하여 극히 도발적인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을 묵인, 두둔해나서는것은 결국 북남관계개선에 장애를 조성하고 대화를 부정하는 행위로 될뿐이다.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법률적근거》가 없어서 삐라살포를 제한할수 없다고 왼새끼를 꼬고있는것도 북남관계개선과 관련하여 제 할바를 줴버리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사람들은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그 무슨 《법집행》의 명목으로 인민들의 반《정부》삐라살포투쟁을 가차없이 탄압한 사실을 기억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제지시킬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아닌보살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그들이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에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나서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어렵게 마련된 긴장완화분위기를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하며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당국대화의 전도를 흐려놓는 망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대결소동이 계속되는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으며 동족대결의 립장과 자세를 버리지 않고서는 온전한 대화도 협력도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할것이다.

박 철 준

로씨야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항의하는 시위 진행, 련대성결의 채택

로씨야의 싼크뜨—뻬쩨르부르그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에 항의하는 시위가 15일 미국총령사관앞에서 진행되였다.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싼크뜨—뻬쩨르부르그시위원회의 인사들과 공청원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미제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행위에 항의하는 내용의 프랑카드들을 들고 떨쳐나선 시위자들은 조선반도에서 항시적인 전쟁위협을 산생시키고있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이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기의 운명을 자체로 개척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평화적인 분위기를 세우리라는 확신과 남조선에서의 미국군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요구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시위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결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로씨야 싼크뜨—뻬쩨르부르그의 청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도발책동에 절대로 무관심할수 없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나라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조선인민의 세기적인 념원을 반대하는데서 남조선괴뢰정부를 리용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한 비렬한 도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감행해왔다.

이러한 도발들은 허위보도전으로서 항상 침략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그러나 남조선괴뢰정부의 전쟁사환군들은 불패의 조선인민군의 무자비한 보복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고있어야 한다.

로씨야의 진보적인 청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지도부가 제국주의침략을 끝장낼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때문에 우리 싼크뜨—뻬쩨르부르그의 공청원들은 국제적안정을 파괴하고 조선민족의 평화적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있는 미제국주의와 그의 사촉을 받는 남조선당국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의 공청원들과 로씨야청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웅적인 청년들과 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을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있다.

청년들이여!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단결, 우리의 적극적인 투쟁에 많은것이 달려있다.

우리의 친선적인 이웃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허위보도전과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우리는 조선청년들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조선인민과의 련대성력량은 더욱 장성될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손을 떼라!

조선혁명의 기치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는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담화

북남고위급긴급접촉으로 모처럼 마련된 관계개선분위기를 고조시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새 장을 열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려는 겨레의 념원과 의지가 뜨겁게 분출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이에 역행하는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져 온 민족을 격분케 하고있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남조선의 《국회》에서 감행되고있는 《북인권법》조작책동을 허위와 날조로 대화상대를 모해하고 북남관계개선을 파탄시켜 동족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기 위한 반민족적망동으로 락인하고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남조선 여야시정배들이 조작하려는 《북인권법》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부정하고 동족간의 반목과 질시, 대결과 충돌만을 불러오게 될 동족대결법이며 북남관계를 또다시 악화와 파국에로 몰아가는 반통일악법이다.

그 누구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기록》하며 쓰레기단체들에 돈을 대주고 동족에 대한 비방중상과 체제전복야망을 공공연히 추구하는 내용으로 꽉 들어찬 이런 대결악법이 조작되는 경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북남관계에 파국적인 후과를 빚어놓게 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일부를 비롯한 남조선당국은 《〈북인권〉문제는 결코 피해갈 문제가 아니》라느니 뭐니 하며 여야정상배들의 《북인권법》조작놀음에 장단을 맞춰 대결을 선동하고있다.

어렵게 마련된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을 통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일정에 오르고 당국간 회담도 앞두고있는 지금이야말로 누구나 민족의 화해와 협력문제를 진지하게 대하고 그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과 성의를 다해야 할 때이다.

더우기 당국자들과 정치인들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남조선의 여야정객들과 당국이 화해와 협력의 상대인 우리의 사상과 체제를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북인권법》조작소동에 앞장서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것은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며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대화상대방을 적대시하면서 그 무슨 《북남국회회담》을 운운하고 《합의리행》과 《관계개선》, 《대화》를 떠들어대는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며 내외여론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지나온 북남관계력사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민족의 화합과 북남관계개선을 귀중히 여기지만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과 여야정상배들은 온 겨레의 념원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반공화국대결악법인 《북인권법》조작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합과 단합의 길에 대결의 먹구름을 몰아오는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9월 25일
평 양

남조선단체들 당국의 반민중적정책 강력히 규탄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전국농민회총련맹을 비롯한 50여개의 단체들이 22일 민주로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결성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재벌들은 배가 터지는 반면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로동자가 수백만명이라고 개탄하였다.

뿐만아니라 농업,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민중의 안전과 생존권이 엄중히 위협받고있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다음달부터 각계층이 지역별, 부문별로 총궐기운동을 선언하고 투쟁을 벌리며 그 기세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집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재벌들이 추구하는 반민중적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청와대로 가자》는 주제의 대중운동을 벌리고 도처에서 벌어지는 로동악법반대투표, 쌀수입반대서명운동 등의 투쟁에 합세하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로동, 농업, 빈민, 청년학생, 민주주의, 인권, 자주평화,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11개 분야에 대한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19일 민주로총과 산하단체 핵심성원들, 로조원 7 000여명이 서울에서 결의집회를 가지고 당국의 반로동자정책에 맞서 싸울것을 선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여 집회

본격화되는 우주진출움직임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인공지구위성이 지구를 박차고 우주에 날아오른 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전진하였다. 이 기간 우주과학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현시기 우주를 인류공동의 발전과 리익에 맞게 연구개발하기 위한 국제적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있다. 특히 발전도상나라들의 우주진출움직임이 적극화되고있다. 지난 시기에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우주진출을 이룰수 없는 하나의 꿈으로 간주되여왔다. 그러나 새 세기에 들어와 세계 많은 나라들이 광활한 우주에로의 진출을 전략적목표로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인디아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얼마전 인디아에서 통신위성 《GSAT—6》을 발사하여 자기 궤도에 진입시켰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IRNSS—1D》로 명명된 항법위성을 성과적으로 쏴올렸다. 이 나라의 우주연구기관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올해말까지 3개의 항법위성을 더 쏴올릴 계획을 밝혔다.

인디아뿐이 아니다.

이란도 우주개발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지난 2월 이란은 새형의 국산제위성인 《파즈르》를 쏴올리는데 성공하였다.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상은 자기 나라가 위성과 운반로케트의 설계로부터 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냈다고 하면서 이로써 이란이 세계적인 우주강국의 대렬에 들어섰다고 말하였다.

이란대통령은 그후 어느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우주개발을 다그칠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정부가 우주개발을 비롯한 과학기술분야에 힘을 넣은 결과 자체의 기술로 《파즈르》위성을 쏴올리는것과 같은 주목할만 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고 언급하였다.

어제날 우주진출에 주의를 돌리지 못했던 나라들에서도 우주개발사업에 발벗고나서고있다.

얼마전 뛰르끼예에서 첫 우주체계통합 및 시험쎈터조업식이 진행되였다. 조업식에 참가한 대통령은 이 쎈터의 창립으로 자기 나라가 우주개발의 첫걸음을 내짚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아랍추장국련방이 인공지구위성발사계획과 2020년 화성에로의 려행 등 전망계획을 제시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첫 상업위성인 《두바이위성—1》호를 제작하여 궤도에 진입시킨 아랍추장국련방은 2016년에 3번째 위성발사를 계획하고있다.

이것은 지난 시기 몇몇 나라들에만 국한되였던 우주개발이 세계적인것으로 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시기 우주공간에 남먼저 진출한 우주선진국들도 우주과학기술발전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로씨야는 이전 쏘련시기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고 유인우주비행을 실현하였다. 우주분야에서 잠재력을 가지고있는 이 나라는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로씨야는 올해에 들어와 통신위성을 비롯한 수많은 위성들을 발사하였다.

뿐만아니라 우주분야에서의 국제적협조도 강화하고있다.

지난 8월말 로씨야 모스크바교외의 쥬쯥스끼시에 있는 그로모브명칭 비행연구소 비행장에서는 국제항공우주전시회 《막스—2015》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전시회에서는 우주분야에서의 협조와 관련한 일련의 계약들이 맺어졌다.

이란과 벨라루씨가 각각 지구원격탐지위성들을 제작해줄데 대한 계약을 로씨야와 체결하였다. 또한 로씨야는 에스빠냐와 한건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의하면 2015년말까지 로씨야가 운반로케트 《드네쁘르》를 리용하여 에스빠냐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것이라고 한다.

이번 전시회는 우주분야를 공동으로 개발, 리용하려는 로씨야의 국제적협조정신을 보여준 계기로 되였다.

제반 사실들은 세계적으로 우주에로의 진출움직임이 본격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림 원

상전의 요구에 극성을 부리는 하수인의 추태

일본에서 미군기지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심각해지고있다.

현재 일미당국은 국내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덴마미군기지의 이설지를 오끼나와현의 헤노꼬연안지역으로 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끼나와현지사 오나가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단을 다하여 미군기지건설을 저지시키겠다는 자기의 립장을 밝혔다. 한편 그는 유엔인권리사회 회의에 참가하여 미군기지가 집중되여있는 오끼나와의 현 상황을 인권침해의 관점에서 취급하면서 후덴마미군비행장을 나고시 헤노꼬에로 이설하는것을 반대하는 연설을 하였다.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는 미일 두 나라 정부가 주동적으로 들고나온것이 아니다. 온갖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는 주일미군기지철폐를 요구하는 오끼나와현민들을 비롯한 일본의 민심에 의해 제기된것이다. 더우기 1995년 9월에 발생한 3명의 미군병사에 의한 일본인소녀륜간사건은 오끼나와현민들의 반미감정을 폭발시켰다.

격노한 민심앞에서 주일미군의 끊임없는 범죄행위를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외면해온 일본정부도, 《보호자》의 탈을 쓰고 오만무례하게 놀아대던 미국도 움직이지 않을수 없었다. 2006년 미일당국은 오끼나와현 기노완시에 있는 후덴마미군기지를 같은 현의 나고시 헤노꼬에로 옮긴다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후덴마미군기지의 현외 혹은 국외이설을 요구하는 오끼나와사람들을 우롱한것이라는것은 론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후덴마미군기지의 현내이설은 강행되고있다.

오끼나와현 지사는 일미당국자들이 강행추진하려는 헤노꼬앞바다에 대한 매립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것이 일본정부와 상전인 미국의 마음에 들리 만무하다.

일본방위상 나까따니는 《매립승인은 법률에 기초하여 내린 적절한 판단이다.》라고 하면서 미군기지이설을 정당화해나섰다. 일본방위성은 지어 매립승인취소가 결정되면 국토교통성에 취소무효를 요구하여 불복심사를 제기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향에서 검토할것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후덴마미군기지의 헤노꼬이설문제를 놓고 중앙과 지방사이의 법정투쟁이 치렬해질것은 명백하다.

상전인 미국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미국무성 대변인이라는자는 계획대로 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수인들에게 강박하였으며 미국방성 대변인까지도 현재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립장을 표시하고 오끼나와현내로 이설해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못박았다.

후덴마미군기지이설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따른 미군무력재편성계획의 한 고리이다.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전략적균형이 변화된 새로운 정세하에서 해외에 전개된 미군무력을 기동전략, 중점전략의 기도에 맞게 재편성하고있다. 미국이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에 나선것도 그에 따른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후덴마미군기지이설은 일본을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실현의 전략적기지로 더욱 전락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대로 주일미군기지강화에 협력하는것은 결국 상전의 군사적통제속에 더 깊숙이 빠져드는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미국에 있어서 일본을 놓치는것은 중요한 전략적기지, 전쟁보급로를 잃는것이나 같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후 저들의 지지와 비호속에 재생제무장된 일본을 그냥 내버려두면 종당에는 미국의 군사적경쟁자, 위협세력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일본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 저들의 손아귀에 계속 틀어쥐고 이곳을 대조선, 대아시아전략실현의 군사전략적거점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주일미군기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일본을 전쟁하수인으로 더욱더 단단히 거머쥐자는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속심이다.

일본당국자들은 그들대로의 야심이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최종목적은 상전의 전쟁책동에 적극 편승함으로써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자는것이다.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가 군국화를 국시로 전면에 내세운 현 정권의 집권후 적극 추진되고있는것도, 미군기지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오끼나와땅에 위험성이 높은 미군의 특수작전용수직리착륙수송기가 무리로 배비된것도 여기에 기인된다.

앞으로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가 미국의 요구대로 막을 내리게 될것이라는것이 분석가들의 견해이다. 미일관계는 침략과 전쟁상태에서만 불수 있는 동맹관계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지금 일본국내에서는 미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집회가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다. 얼마전에도 도꾜 국회청사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헤노꼬에서의 새로운 미군기지건설을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일미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일본의 여러 야당지도자들도 오끼나와현 지사의 행동을 적극 지지해나서면서 《정부는 지사의 통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새 기지건설을 단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 나라 땅에서조차 남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처신하는 일본당국, 제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전의 요구에 모든것을 통채로 떠맡기는 가련한 일본집권자들의 비굴한 추태는 세상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라 명 성

ㄱ-51151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